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3호 【루계 제23145호】 주체99(2010)년 7월 12일 (월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사 설

경공업혁명의 불길드높이 인민소비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자

오늘 우리 당은 경공업과 농업생산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웅대한 작전을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지금 경공업부문에서는 최근년간에 있어본적이 없는 비약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우리는 경공업부문에서 일어나고있는 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질좋은 인민소비품이 쨍쨍 쏟아져나오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이 잘 살 그날을 앞당겨와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나라의 경공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인민생활을 더욱 높여야 할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공업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는것은 인민생활을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고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오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경공업은 농업과 함께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이다. 나라의 경공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워 질좋고 값눅은 상품들이 상점들마다 차넘쳐야 우리 인민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할수 있다.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우리 당은 부강조국건설의 첫 시기부터 시종일관 경공업발전에 커다란 힘을 넣어왔다. 빈터우에서 방직공업, 식료가공공업, 신발공업, 일용품공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을 종합적으로 다 갖춘 위력한 경공업이 일떠선것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위대한 전변이다. 오늘 우리 당은 강성대국건설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경공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함으로써 인민소비품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최단기간에 훌륭히 풀어나가기 위한 거창한 작전을 펼치고있다.

우리 당의 구상은 비상히 강화된 우리의 경제적토대와 잠재력에 기초한 과학적인 설계도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경공업공장들이 기술적으로 개건되고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이 새로 일떠섰으며 경공업의 생산잠재력이 크게 장성하였다. 특히 화학공업,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생산적앙양이 일어나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뒤받침해주고있다. 지금 현대화된 경공업부문의 공장들에서 생산이 활성화되고있는 현실은 우리 당이 제시한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당이 지펴준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는 경공업부문에서도 혁신의 불길로 타오르고있다. 우리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이룩되고있는 오늘의 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감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 높이 떨치며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의를 남김없이 발양시켜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이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구상과 의도를 무조건 관철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신하는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짧은 기간에 인민소비품문제해결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이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인민의 천만가지 리상을 꽃피워주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한몸바쳐 현실로 전변시킬 결사의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인민소비품생산투쟁에 창조적지혜와 힘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적극 탐구동원하고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헤쳐나가면서 자기 단위에 맡겨진 전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제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야 한다.

오늘 소비품의 질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요구수준은 훨씬 높아졌다. 인민소비품을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 때 우리 인민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일군들은 소비품의 질문제에 대한 관점을 바로세우고 생산을 전문화하며 생산자대중의 창조적열의와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인민들이 사랑하고 즐겨찾는 다양한 소비품들이 쏟아져나오게 하여야 한다. 포장혁명을 일으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알뜰하고 맵시있게 만들어야 한다.

경공업혁명을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야 우리에게 없는것도 만들어낼수 있고 생산장성과 제품의 질제고, 로력과 원료, 자재의 절약에서도 혁신을 일으킬수 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최첨단돌파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공정들을 기술적으로 개건하며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우리의 경공업을 21세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최첨단수준에 올려세우도록 하여야 한다.

련관부문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경공업부문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인민소비품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이 다 서로 련관되여있지만 가공공업인 경공업은 그 어느 부문보다도 다른 부문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련관된 부문에서 원료, 자재를 대주어야 경공업공장들의 생산을 늘일수 있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높은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경공업에 필요한 섬유원료와 염화비닐을 비롯한 수지원료, 여러가지 화학자재들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 기계공업,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는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전력, 석탄, 금속자재, 목재, 농업생산물 등 원료,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필요한 연료와 원료, 자재 그리고 생산한 상품을 경공업공장들과 소비지에 지체없이 실어다주어야 한다. 무역부문에서는 우리가 생산하지 못하거나 적게 생산하는 경공업원료, 자재를 제때에 해결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인민소비품생산이 정상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업을 활성화하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방공업공장들에서는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관리운영을 과학화하여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그 면모를 일신시켜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자체의 원료기지를 더 많이 조성하고 원료원천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소비품생산을 질량적으로 늘여야 한다. 그리하여 지방공업이 나라의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여야 한다.

중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생활필수품직장, 작업반들을 잘 꾸리고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질좋은 생활필수품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모든 지방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일군들이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조직지휘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해당 부문의 지도일군들은 인민소비품문제를 결정적으로 풀어 인민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이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공고히 하며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야 한다. 인민소비품생산계획을 바로세우며 그 수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한다. 특히 원료, 자재보장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맞물리며 그것이 무조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 지도일군들은 늘 아래에 내려가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제때에 풀어주어 어떤 조건에서도 생산계획과제를 일별, 순별, 월별, 분기별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당의 의도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질좋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을 가지고 생산조직과 지휘를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뜻깊은 올해에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려는 당의 의도가 빛나는 결실을 가져오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인민소비품생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야 할것이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혁명적대고조의 자랑찬 성과로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힘차게 전진

각지 수력발전소의 일군들과 전력생산자들

전국 각지의 수력발전소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휘몰아치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한마음안고 총공세의 앞장에서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수력발전부문의 로동계급은 충천한 기세로 전력증산투쟁에 드센 박차를 가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매일 평균 수백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발전소들에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며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혁신운동을 널리 벌려 발전기의 효률을 끊임없이 높여 적은 불량을 가지고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성의 일군들은 모든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이미 마련되여있는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특히 이들은 변화되는 날씨조건에 맞게 과학적인 물관리체계를 세우고 설비관리운영과 정비보수를 질적으로 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하면서 기술개건사업을 줄기차게 내밀고있다.

대규모수력발전소들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허천강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높은 정치적자각과 열의를 안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며 자력갱생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발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계획수행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

수풍발전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설비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치면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력증산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고있다.

부전강발전소와 강계청년발전소의 로동계급도 수력구조물관리에 큰 힘을 넣고 발전설비들에 대한 업간점검과 순회점검을 강화하면서 높은 수위, 높은 효률운전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매일 계획보다 많은 량의 전기를 더 생산하고있다.

당대표자회소집에 대한 결정서를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고 증산투쟁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태천발전소와 대동강발전소, 서두수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발전설비들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보수정비를 실속있게 하면서 그 관리운영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다. 또한 합리적인 부하분배를 실현하고 발전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날에날마다 높은 전력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장진강발전소, 남강발전소, 장자강발전소, 위원발전소의 로동계급은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대고조전투장들에 많은 량의 전력을 생산보장하고있다.

상반년 전력생산과제를 계획보다 훨씬 넘쳐 수행한 각지 중소형발전소들에서도 자력갱생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날에날마다 많은 전력이 쨍쨍 쏟아져나와 오늘의 총진군에 활력을 더해주고있다.

지금 각지의 수력발전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장마철전력생산대책을 빈틈없이 세운데 기초하여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전력증산성과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장마철생산대책을 빈틈없이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로 들끓는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장마철생산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석탄생산을 계속 힘있게 내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장마철생산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는것을 석탄생산을 계속 늘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내세웠다. 아래탄광들에 내려간 련합기업소참모부의 일군들은 협의회를 열고 장마철생산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생산을 계속 늘여나가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최근에만 하여도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는 굴진을 힘있게 내밀어 수십개의 예비채탄장들을 마련하였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굴진에 력량을 집중하여 예비채탄장들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게 하고있다.

아래탄광들에 내려간 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탄광들에서 기술공정의 요구대로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나가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탄부들속에서 제기되는 기술혁신안, 창의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굴진을 빠른 속도로 내밀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굴진에서 앞서나가는 갱들과 굴진소대들을 적극 소개선전하고 좋은 경험들을 제때에 일반화하는 방법으로 굴진공들의 사기를 부쩍 돋구어주고있다. 그리하여 탄광들에 예비채탄장들이 련이어 늘어나고있다.

지금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는 장마철과 관련하여 갱안의 배수로와 저수움정리, 양수설비들에 대한 보수정비, 채탄장을 새로 꾸린 구역들에 뽐프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장마철생산대책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그리고 장마철에 큰비가 내려 운탄선로들이 지장을 받을수 있는 구간들에 대한 보수정리와 저탄장들에 쌓인 석탄이 큰물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지붕보수공사와 물도랑치기작업도 예견성있게 진행되고있다.

흑령탄광과 강동탄광, 령남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장마철생산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흑령탄광에서는 장마철생산대책을 실정에 맞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탑동갱과 로적갱을 비롯하여 침수될수 있는 일부 구역들에 저수움도 새로 건설하고 배수설비들도 예견성있게 설치하고있다. 그리고 군중적으로 떨쳐나 운탄선로의 불비한 구간들에 대한 물도랑정리와 옹벽보수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강동탄광에서는 혁신2갱과 청년갱의 침수될수 있는 구역들에 저수움을 새로 건설하고 뽐프를 비롯한 배수설비들을 설치하여 갱, 막장들에 물이 차는 일이 없도록 하고있다. 령남탄광에서는 석탄생산에서 많은 몫을 맡고있는 2갱과 3갱에 이미 조성해놓은 배수능력을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한 해당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탄광들에서 이미전에 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놓은 공무기지를 리용하여 장마철에 전차와 탄차, 불도젤과 굴착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비부속품들도 마련하게 하고 갱목도 예견성있게 더 많이 확보하게 하고있다.

특파기자 최재남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천내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장마철생산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탄부들속에 들어가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잘 세우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인식시켜주면서 이 사업에 모두가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의 일군들은 탄광들을 맡고 내려가 탄부들과 함께 장마철기간에 피해를 입을수 있는 요소들을 제때에 알아보고 미리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는 당면한 석탄생산을 본격적으로 다그치면서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여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가고있다. 탄광들에서는 굴진을 대담하게 내밀어 여러개소의 예비채탄장을 새로 마련하고 뽐프설치 및 수리 등 장마철기간에 석탄생산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을 세워놓았다.

장마철생산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기 위한 사업의 앞장에는 문천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서있다.

련합기업소의 석탄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다는 자각을 안고 이곳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장마철기간에 저탄장을 비롯한 주요대상들이 사소한 피해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을 전투적으로 벌리였다. 그리하여 탄광에서는 갱내배수로와 저탄장배수로 정리 등 장마철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놓고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밀고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굴진을 선행하여 예비채탄장을 앞질러 마련하고 채탄장부하률을 끊임없이 높임으로써 매일 계획보다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천내탄광에서는 예비채탄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으면서 전주공사 및 통신선로보수를 진행하여 그 어떤 큰물에도 끄떡없이 생산을 내밀수 있게 해놓았다. 특히 산사태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옹벽쌓기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낸데 이어 갱내물길정리와 저탄장물도랑파기를 잘해놓아 큰물에 의한 석탄류실현상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놓았다.

삼천탄광에서도 갱막장들의 침수를 막는데서 배관계통과 뽐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많은 뽐프와 전동기를 수리정비하면서 석탄생산을 늘이고있다.

지금 이곳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결의안고 모두가 떨쳐나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계속 철저히 세워나가면서 매일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봄누에고치따기한창

각지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

지금 각지의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는 봄누에고치따기가 한창이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각지 고치생산사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누에고치를 제때에 따들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전군중적운동으로 누에고치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벌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옷을 해입히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꽃피우실 원대한 구상을 안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잠업농장들을 찾으시여 잠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였다.

누에고치생산을 늘여 비단폭포가 쏟아지게 할데 대한 공동구호의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하여 각지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는 뜻깊은 올해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드높은 열의안고 누에치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마련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누에고치생산을 늘여 비단폭포가 쏟아지게 해야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이것을 명심한 잠업비단지도국을 비롯한 각 도잠업부문 일군들은 올해 누에고치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고치생산사업소들에 내려가 근로자들이 봄내애써 생산한 누에고치를 허실없이 제때에 거두어들이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평양시안의 고치생산사업소들이 누에고치따기에 앞장섰다. 시의 해당 부문 일군들은 고치생산사업소들에 나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도록 정치사업을 앞세우면서 누에고치를 따는족족 수매하도록 빈틈없는 조직사업을 하였다. 강동, 사동, 락랑, 형제산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는 로력조직사업과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누에고치따기를 적극 다그치고있다.

황해남도안의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는 누에고치따기를 전투적으로 다그치는 한편 건조장들을 만가동시켜 매일 많은 누에고치를 말리우고있다. 봄누에고치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보고있는 봉천, 신원, 재령, 청단, 삼천, 연안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는 누에고치따기가 시작되기 전에 건조장들을 질적으로 보수정비한데 기초하여 누에고치를 따는족족 제때에 말리우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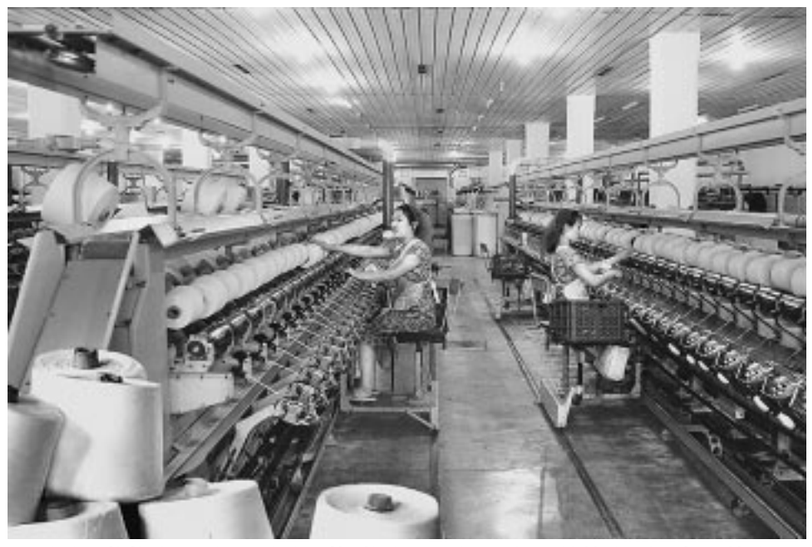
누에치기에 큰 힘을 넣어온 금야, 북청고치생산사업소를 비롯한 함경남도안의 고치생산사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누에고치따기에서도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누에가 자라는데 맞게 뽕잎을 제때에 따들이면서 누에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한 결과 좋은 결실을 마련해놓은 기세드높이 누에고치따기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평안북도의 고치생산사업소들에서도 목표를 높이 세우고 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좋은 성과를 이룩한데 이어 누에고치따기도 적극 내밀고있다. 운전, 피현, 구장, 운산, 의주고치생산사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누에고치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드높은 열의안고 누에고치를 제때에 따들이고있다.

은파, 연탄, 토산, 황주, 장풍, 상원, 안변고치생산사업소들을 비롯한 황해북도, 강원도안의 고치생산사업소일군들과 근로자들도 봄누에고치생산을 훨씬 늘인 자랑을 안고 누에고치따기실적을 부쩍 높이고있다.

올해 누에고치생산계획을 기어이 넘쳐 수행하여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에 넘쳐있는 각지 고치생산사업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날마다 누에고치따기실적을 올리고있다.

본사기자 황연옥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한마음으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평양방직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을 백전백승에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우리 당이 창건된 때로부터 65년이 가까와오고있다.

뜻깊은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질 대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에 접한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커다란 격정과 감회를 안고 우리 당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로정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우리 당은 오랜 력사기간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조국땅우에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을 일떠세우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았다. 세상에는 조선로동당처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며 백전백승의 력사를 수놓아온 혁명적당은 없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이 땅우에 기어이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이 활짝 꽃핀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1

조선로동당은 우리 조국과 혁명,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자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멸고도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청사에 빛날 업적을 쌓아올렸다.》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사회의 향도적력량이다. 조국과 혁명, 인민의 운명과 전도는 전적으로 당의 령도에 달려있다.

옳바른 사상과 로선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강력한 주체로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당의 조직자적, 향도자적역할에 의하여서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빛나게 개척되고 인민들의 참다운 리상과 행복이 꽃펴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혁명력사에 영원히 빛날 위대한 변혁이 이룩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새로운 대고조의 불길속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책동속에서도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나고 인민의 리상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강성대국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가 안아온것이다.

조선로동당은 65성상 우리 인민에게 백전백승하는 영웅적인민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시련과 대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자주의 최강국으로 누리에 빛내였으며 오늘은 인류의 사회주의리상실현의 본보기를 펼치며 우리 혁명을 찬란한 미래에로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 거창한 사회적변혁과 경이적인 사변들, 금성철벽으로 다져진 정치사상진지와 군사적진지에도 우리 당의 비범한 령도의 자욱이 빛나고있고 전체 인민들이 누리는 값높고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에도 우리 당의 하늘같은 은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이 구호에는 주체의 기치, 선군의 기치높이 력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헤치며 승리와 기적만을 아로새기는 조선로동당에 모든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맡기고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전체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65성상의 장구한 나날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개척하고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며 모든 단계의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여 조국과 인민의 자손만대 번영과 행복을 위한 광활한 길을 열어놓은것으로 하여 우리 당은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다.

조선로동당의 65성상은 옳바른 전략과 전술, 로선과 정책으로 우리 인민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위대한 향도자의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당의 옳바른 전략전술적령도는 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인민들은 당이 제시하는 사상과 전략, 로선과 정책에서 투쟁방향과 방도를 찾고 승리를 확신하며 혁명투쟁에 몸바쳐 떨쳐나서게 된다.

우리 혁명은 처음부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야 하였으며 우리앞에는 기성의 리론과 경험으로는 풀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우리는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혁명을 시작하였으며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지고 모든것이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걸음걸음 시련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하는 간고한 혁명의 길에서 우리 인민이 언제나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주체적인 사상과 전략, 투쟁로선과 방침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준 당의 정확한 전략전술적령도가 있었기때문이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당건설의 조직사상적기초를 마련하고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던 시기에도 독창적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사상을 제시하고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였으며 자기의 창건을 선포하고 정권을 잡은 후에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내놓고 새 사회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켰다. 우리 당은 해방직후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여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을 풀어주었으며 전후 재더미우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와 남들이 수백년이 걸린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짧은 기간에 실현하여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대문을 열어주었다.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과 군건설로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제시한 모든 로선과 정책은 인민의 지향과 요구, 우리 나라의 사회력사적조건과 구체적현실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백전백승을 안아왔다.

우리 당이 최근년간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령도업적과 경험을 계승하여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과 로선을 제시하고 빛나게 구현해온것은 당이 변화되는 정세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하는가를 보여준 귀감으로 된다.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우고 무적의 군력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반제군사전선이 혁명의 기본전선으로 되고있는 오늘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는 길을 밝힌 백승의 지침으로 되고있다.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빛나게 구현함으로써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사생결단의 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하였으며 우리 조국은 최악의 역경을 뚫고 강성대국에로 솟구쳐오르는 위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만 있으면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두려울것이 없고 강성번영의 찬란한 앞길을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이 오랜 기간의 혁명실천속에서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혁명의 철리이다.

조선로동당의 65성상은 인민대중을 혁명의 강력한 주체로 키우고 그들을 조직동원하여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여온 긍지높은 력사이다.

인민대중을 자주적주체로 키우는것은 혁명승리의 선결조건이다. 당이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굳게 묶어세워야 믿음직한 정치적지반을 가질수 있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백승을 떨칠수 있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전기간 전체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데 최대의 힘을 넣어왔다. 세계전쟁사의 기적으로 아로새겨진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강국으로 단숨에 치달아오르게 한 전후의 천리마대고조, 로동당시대의 전성기를 펼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대진군은 우리 당의 비범한 령도력의 뚜렷한 과시로 된다. 전체 인민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로 만들고 그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온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모든 단계, 모든 시대의 혁명투쟁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근본비결이 있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자 일심단결의 위력, 인민대중의 정치사상적위력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은 우리 혁명대오의 중심, 단결의 중심에 확고히 서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품속에서 혁명의 전위투사로 자라난 수백만 당원들이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있고 우리 당과 우리 제도, 우리의 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무적필승의 인민군대가 당의 사상과 로선을 앞장에서 받들고있으며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당과 숨결을 같이하고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강력한 혁명의 주체, 일심단결의 대부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크나큰 자랑이며 바로 여기에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하고 세기적인 기적을 창조해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성이 있는것이다.

당의 령도밑에 간고한 투쟁의 폭풍우속에서 비상히 강화된 우리 혁명의 주체의 위력을 당할 자는 이 세상에 없다. 우리는 세계가 알지 못하는 이 막강한 자주적주체의 위력으로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조선로동당의 65성상은 우리 인민의 운명과 생활,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온 위대한 어머니당의 긍지높은 력사이다.

당이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것은 인민들에게 값높고 존엄있는 삶과 행복을 안겨주자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 당은 인민의 리익의 대표자, 운명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이다. 인민의 리익은 우리 당의 모든 활동의 출발적기초이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값높은 삶을 안겨주는것은 우리 당의 총적인 투쟁목표이다. 우리 당은 당사업의 기본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내세우고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리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인민을 혁명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당의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정권도 인민의 정권, 군대도 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되고 경제와 문화도 인민을 위한것으로 건설되였으며 조국땅에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가 일떠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우리 당이 일떠세운 사회주의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이다. 전체 인민이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여러가지 인민적인 시책에 의하여 값높고 행복넘친 생활을 누리고있는 나라가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 이것은 우리 당 정치의 출발점이고 근본바탕이다. 각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고 보람찬 삶의 길로 이끌어주는 우리 당의 숭고한 인덕정치와 인민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는 인민적인 시책들, 우리 사회의 매 가정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미치는 우리 당의 뜨거운 관심과 은정은 전체 인민이 당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따르는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지난 65성상 우리 당이 구상하고 설계하고 실천한 모든것은 다 인민을 위한것이며 인민의 리상과 행복을 꽃피우기 위한것이였다. 우리 당이야말로 인민을 하늘처럼 내세우고 자기 발전의 전 력사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수놓아온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 이것은 바로 오랜 력사적투쟁속에서 천만군민이 실생활로 체득하고 심장으로 웨치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대한 긍지높은 부름이다.

2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주체형의 당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하여온 강위력한 혁명의 참모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 과정에서 언제나 모든 승리의 열쇠를 당을 강화하는데서 찾으시고 우리 나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을 건설하는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당의 령도는 곧 수령의 령도이며 당의 위대성이자 수령의 위대성이다.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에 의하여 당건설위업이 개척되고 빛나게 실현되며 당의 지위와 역할이 비상히 높아지게 된다.

조선로동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80년전 카륜에서 주체사상의 창시를 선포하시고 자주적인 당건설방침을 제시하신데 이어 첫 당조직—《건설동지사》를 결성하시였다. 이것은 《ㅌ.ㄷ》에서 시작된 주체의 당건설위업을 실현하는데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건설되였기에 우리 당은 처음부터 온갖 사대와 교조를 타파하고 자주의 기치밑에 혁명을 이끌어나가는 필승불패의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될수 있었다.

우리 당은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로 당의 핵심골간들을 키우신 분도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언제나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당의 기층조직들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해나가신 분도 어버이수령님이시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초와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당은 창건첫날부터 마치와 낫과 붓이 아로새겨진 붉은 기폭에 언제나 승리만을 아로새겨올수 있었다.

백수십년을 헤아리는 혁명적당건설사에는 우리 수령님과 같이 10대에 주체형의 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고 30대에 당창건위업을 실현하시였으며 장장 50성상 우리 당을 세련된 혁명의 참모부로,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켜온 위인은 없었다.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생명선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건설된 당,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으로 필승불패의 위력을 떨쳐온 혁명적당이 바로 조선로동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당건설위업은 우리 당의 대표자이시며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는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당과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면서 수령의 당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초석을 다져놓으신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을 혁명의 근본문제로 내세우시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실록이 있어 조선로동당의 65년력사가 더욱 빛나고 장군님의 당령도사와 업적이 위대하기에 우리 당과 혁명의 전도가 끝없이 양양한것이다.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우리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최대의 업적이다.

당은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무기이다. 수령의 사상과 혁명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당만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수령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할수 있고 인민대중의 혁명위업을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당령도사는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일관되여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정식화하시고 전당주체사상화의 기치를 높이 드신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전당의 사상적일색화위업이 힘있게 추진됨으로써 우리 당은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선 완전무결한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하는 철통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하였기에 우리 당은 지난 시기 세계를 휩쓴 반사회주의역풍속에서도 끄떡하지 않았고 시련과 난관이 겹쌓일수록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을 피눈물의 언덕에서 산악같이 일떠세우시고 선군혁명의 길로 줄기차게 이끌어오신 지난 10여년간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불멸의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새 세기 우리 당과 혁명의 지도적지침으로 내세우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밑에 수령결사옹위정신에 기초한 당대렬의 정예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우리 당은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강위력한 전위대오로 그 존엄과 위용을 더욱 높이 떨치게 되였다.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식대로, 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오늘 우리 당건설의 근본초석으로, 수령님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은 우리 당의 기본활동방식으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우리 당의 투철한 정치신조로 빛나고있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당의 령도적역할을 비상히 높여 우리 당이 선군혁명의 향도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가도록 하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다.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근본원칙이며 혁명과 건설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여기에 인민대중의 모든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력을 백방으로 높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와 변혁을 안아오시였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로동당시대의 일대 전성기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것을 기본고리로 틀어쥐고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펼쳐진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혁명령도의 전기간 우리 당을 선군혁명위업을 승리에로 이끄는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최우선적인 힘을 넣으시였다. 일찌기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던 때로부터 인민군대안에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시고 전군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견지명은 우리 당이 혁명앞에 준엄한 시련이 가로놓였던 지난 세기 90년대 중엽에 선군정치방식을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위대한 승리로 아로새길수 있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가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강위력한 주력군이 되여 반제반미대결전과 강성대국건설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은 끊임없는 전선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우리 혁명무력을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억세게 키워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오늘 조선로동당의 령도는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생명선으로 되고있다. 당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는 제일결사대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오늘의 혁명적대고조에서 인민군대가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속도를 창조하며 노도쳐 전진하고 전체 인민이 군인정신, 군인기질, 군인기백으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안아온 긍지높은 현실이다.

오늘 우리 당안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전당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사상과 행동의 일치성이 철저히 보장되여있으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확고히 서있다. 전체 당원들이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동지적으로 철통같이 뭉친 일심단결의 대오,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선군정치를 믿음직하게 받들며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가는 불패의 전투대오,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면모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의 빛나는 력사와 전통을 창조해온 조선로동당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빛날것이다.

3

오늘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서 강성대국의 빛나는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은 선군시대이며 우리 혁명은 당의 선군령도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습니다.》

위대한 력사와 전통, 풍부한 투쟁경험을 가지고있는 우리 당은 장구한 선군혁명의 불길속에서 더욱더 세련되고 불패의 위력을 지니였다.

지금 우리 당은 강성대국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오늘의 선군시대는 당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고 우리 인민의 모든 리상과 행복이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위대한 번영의 시대이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김일성**민족의 정신력이 최대로 분출되고 도처에서 세상을 들었다놓는 경이적인 사변들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비상히 강화된 우리 당의 전투적위력의 힘있는 과시로 된다.

65성상의 장구한 나날 백전백승을 떨쳐온 우리 당은 앞으로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그 위용을 높이 떨쳐갈것이다.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존엄과 권위는 곧 령도자의 위대성이다. 걸출한 령도자를 모신 당만이 높은 령도적권위를 지니고 인민들을 승리와 번영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당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강대성과 승리의 상징이시다. 우리 조국과 인민을 승리와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온 우리 당의 성스러운 투쟁행로에도, 인류자주위업수행의 앞장에서 반제투쟁의 기적을 창조하여온 불멸의 영웅서사시에도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시는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우리 당건설과 활동의 앞길을 밝히는 강령적지침으로 되고있으며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길에서 가르쳐주시는 당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인민적령도방법의 귀감으로 되고있다. 천재적인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령도실력, 고매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령도적권위가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는것이다.

만민이 한결같이 우러르는 희세의 정치가, 걸출한 령도자를 진두에 높이 모시여 우리 당은 앞으로도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그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갈것이다.

전당이 수령결사옹위의 결정체로 굳게 결속된것은 우리 당의 백전백승의 근본원천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수령결사옹위의 력사이며 오늘의 선군시대는 당원들의 결사옹위, 결사관철정신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되는 시대이다. 우리 당원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는 절대적인 진리로 되고있으며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것은 더없는 영광으로 되고있다. 전체 당원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질화하고 위대한 장군님과 혼연일체를 이룬 바로 여기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로동당의 참모습이 있고 무한대한 위력이 있다.

오늘 우리 혁명대오의 앞장에는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끓이는 수백만 당원들이 서있다. 강성대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당의 대고조사상을 실천으로, 실적으로 빛내여나가는 선봉투사들이 바로 우리 당원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량심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온 사회에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전당이 이 세상 끝까지 위대한 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장군님을 한목숨바쳐 결사옹위할 철석의 맹세로 충만되여있기에 우리 당의 위력이 비길데없이 강화되고있는것이다.

당과 군대와 인민의 철통같은 일심단결은 우리 당의 불패성의 근본비결이다.

일심단결은 우리 당의 혁명철학, 정치신조이다. 혁명적동지애로 개척되고 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를 떨쳐온 우리 당의 력사와 전통은 새 세기에도 꿋꿋이 이어지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심단결을 새로운 높이에서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고있다.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확고히 보장하고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당의 령도밑에 군민대단결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정치사상진지는 천백배로 다져지고있으며 우리 당에 대한 천만군민의 지지와 신뢰는 절대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의 일심단결은 핵무기로도 깨뜨릴수 없고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추호의 흔들림없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10년이상 걸려야 한다던 대규모발전소건설을 단 몇해사이에 해제낄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고 최첨단의 목표도 용감무쌍히 돌파하는것과 같은 성과들은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로 뭉친 우리 나라에서만 이룩될수 있는것이다.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조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은 세계를 진감하고있다. 이 위대한 일심단결이 있기에 우리는 반제투쟁의 력사를 백전백승으로 빛내이며 이 땅우에 기어이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울것이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서의 조선로동당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조선의 대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높이 들고나가야 할 신념의 구호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 구호를 백전백승의 기치로 높이 추켜들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것이다.

김 일 룡, 김 홍 근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할 일념안고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공격정신으로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과 성, 중앙기관 돌격대원들, 수도건설부아래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총공격전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공사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공사를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인민생활향상의 해인 올해에 수도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살림집골조공사실적을 계속 높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적대고조로 들끓는 오늘의 현실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는 용감한 공격정신,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갈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습니다.》

거창하게 벌어지는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여 선군시대의 《평양번영기》를 펼쳐나가려는것은 공사에 참가한 모든 군인건설자들과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드팀없는 결의이고 의지이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불가능을 모르는 과감한 공격정신으로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임으로써 살림집골조조립세대수를 나날이 늘이고있다.

하당, 서포지구에 전개된 여러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공동사설과 공동구호의 전투적호소를 받들고 공사과제수행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이들은 살림집구획의 원림화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 한마음을 안고 건설장주변에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정성껏 심고 가꾸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와 조선인민내무군 하정길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무조건 한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맡은 공사과제를 제기일에 끝내기 위해 총공격전의 불길을 높이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자체로 건설기계와 자재를 확보해놓고 살림집골조공사를 다그치는 한편 한대의 철근을 조립하고 한삽의 혼합물을 이겨도 모든 건설물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고있다. 조선인민내무군 하정길소속부대의 김남일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공정별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고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모래와 철근을 비롯한 공사자재를 적지 않게 확보한 기세로 공사실적을 계속 높여나가고있다.

조선인민군 최대일, 김창섭소속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다. 최대일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선군시대 《평양속도》창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갈 일념을 안고 하루전투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남다른 자랑을 떨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평양시건설관리국과 속도전청년돌격대관리국아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맡은 다층살림집건설장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와 동구주택건설사업소, 속도전청년돌격대관리국아래 제6려단 1대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건설속도를 부쩍 높일수 있는 조립식부재시공방법을 비롯한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살림집골조공사를 끝낸데 이어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 달려나온 성, 중앙기관 돌격대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리용하면서 공사성과를 끊임없이 높이고있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체신성, 륙해운성과 경공업성, 채취공업성건설련대들과 인민봉사총국건설려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맡은 공사를 빠른 기간에 다그쳐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살림집골조공사를 본때있게 다그치고있다.

문화성을 비롯한 여러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자기 단위 건설자들이 일하는 현장에 로력과 자재를 원만히 대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어 공사장의 숨결을 높여주고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건설사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비상한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맡겨진 구획도로 및 정화장건설을 비롯한 시설공사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고있다.

대평지구의 살림집건설을 위한 방대한 량의 하부구조공사를 맡은 속도전청년돌격대관리국아래 여러 려단들과 평양시녀맹돌격대원들도 도로와 다리공사를 위한 갱정파기와 성토작업에 달라붙어 련일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여러 단위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과감한 공격정신에 의하여 수도의 살림집건설장에서는 지금 살림집골조들이 경쟁적으로 솟아오르고있다.

계속혁신의 한길로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조선인민군 최대일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덩지가 큰 여러동의 다층살림집건설과제를 맡고있다.

공사량적으로 방대하고 아름찬 대상들이다. 하지만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맡은 대상건설을 기한전에 완공할 불같은 열의를 안고 공사를 본때있게 추진하며 실적을 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신심과 락관에 넘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돌진하여야 합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들을 남먼저 확보해놓고 공사실적을 부쩍 올려 1단계 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곳 군인건설자들의 가슴속에 무엇이 끓고있기에 이처럼 높은 성과를 거두고있는것인가. 수도의 살림집건설에서 혁명군대의 과감한 공격정신을 발휘하여 맡은 공사를 반드시 제기일에 다그쳐 끝내려는 불타는 일념이 이들의 가슴마다에 가득차있기때문이다.

기초공사를 할 때까지만 하여도 작업조건은 여간만 불리하지 않았다. 살림집호동들이 구릉지대에 자리잡은것으로 하여 암반과 물이 나오는 등 애로가 많았다. 게다가 현장이 경사지로 되여있어 중기계를 들이댈수도 없었고 주변은 주민지구여서 발파도 제대로 할수 없었다. 하지만 공사시작부터 작업속도를 부쩍 높이려는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생각에는 드팀이 없었다. 하기에 이곳 군인건설자들은 어려운 속에서도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였다.

최관철소속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이 기초공사의 맨 앞장에서 내달렸다. 이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초굴착공사를 마무리한 현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였을 때에도 주저하지 않고 앞선 단위 못지 않게 공사실적을 높이기 위해 혁명군대의 일본새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이들은 기초굴착공사장을 불타는 전초가로 여기고 낮과 밤을 이어가며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차오르는 감탕을 퍼내고 암반을 까내기 위한 전투를 과감히 벌리였다.

결과 이들은 열흘 남짓한 기간에 1 500㎥의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련이어 콩크리트치기에 들어감으로써 공사를 일정대로 추진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골조공사에서도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김창수소속구분대의 군인건설자들이 남모르게 새겨가는 위훈도 부대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이들은 앞선 공법으로 휘틀과 철근조립, 콩크리트치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을 받아들여 같은 설비, 같은 자재를 가지고 단위시간에 높은 실적을 내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은 오늘도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중요대상건설을 최대한 다그칠데 대한 공동구호의 호소를 받들고 공사과제수행에서 견인불발의 의지를 발휘하며 혁신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공사속도를 부쩍 높이면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자기들이 맡은 수백세대의 살림집건설에서 공사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모든 살림집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그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건물을 하나 일떠세우고 보수하여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부대가 맡은 살림집건설장에서는 자체로 확보한 콩크리트혼합기와 권양기를 비롯한 건설기계들이 힘차게 가동하고있다. 전관식, 박성도동무를 비롯한 지휘관들은 능률높은 건설기계들을 원만히 갖춘데 맞게 전기공사를 비롯하여 그 가동률을 높일수 있는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군인건설자들의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켜 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다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지휘관들의 면밀한 작전에 따라 수km의 전기선공사가 진행되고 건설기계들의 가동률이 부쩍 높아져 현장의 분위기는 나날이 고조되고있다.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게

혁신의 앞장에는 김원일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 서있다. 이들은 하루작업이 끝나면 다음날공사준비를 빈틈없이 해놓는 혁명적인 일본새를 보여주고있으며 많은 골재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콩크리트치기를 힘있게 내밀어 남먼저 여러층의 살림집골조를 시공하는 자랑을 떨치고있다.

허길수, 리영길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도 공사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건설물의 질보장에 힘을 넣어 하나하나의 구조물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일떠세우고있다.

이들은 휘틀대기와 철근조립을 비롯한 모든 공정수행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현장정리도 번듯하게 해놓아 건설장주변을 오가는 사람들로부터 혁명군대의 일본새가 정말 다르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공사를 손색없이 다그치는 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의 일본새가 남다르기에 이곳 살림집건설장에서는 얼마전에 시공단위 일군들에 대한 보여주기사업도 진행되였다.

공법의 요구를 어김없이

륙해운성건설련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무리 많이 생산하고 건설하여도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이 높지 못하면 그것이 효과있게 쓰일수 없습니다.》

우리는 중앙련합지휘부의 해당 일군으로부터 륙해운성건설련대가 맡은 다층살림집공사의 질적수준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찾았다.

건설장에서 우리는 공사의 질보장을 위해 애쓰는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깊이 느낄수 있었다.

련대의 일군들은 언제나 질보장에 첫째가는 힘을 넣고있다.

문철호, 리광남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콩크리트치기에 필요한 건설장비를 원만히 갖출 때 공법의 요구를 어김없이 지킬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공사초기에 건설기계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일군들의 면밀한 작전에 따라 련대에는 지금 혼합기와 자갈세척을 위한 양수기를 비롯한 능률높은 설비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다.

성능높은 건설기계들이 마련되였다고 공사의 질적수준이 저절로 높아지는것은 아니다.

련대의 일군들은 모든 건설자들이 혼합물생산과 콩크리트치기를 비롯한 공정수행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건설물의 질보장을 위해 설계도면을 펴놓고 진지한 토론을 거듭하면서 요구성을 높이고있으며 일정계획수행정형을 총화할 때에는 질적수준을 먼저 분석하고 공사수행량을 평가하고있다.

련대의 건설자들은 휘틀과 철근가공 및 조립을 자그마한 편차도 없이 진행하고 혼합물의 다짐을 실속있게 함으로써 콩크리트구조물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있다. 모든 공정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착실히 진행해나가는 련대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애국의 마음을 보여주는 가지가지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이다.

지난 4월 어느날, 기초공사과정에 굳어진 기초벽에서 휘틀을 해체하였을 때였다. 기초벽의 한 부분이 매끈하게 완성되지 못한것이 일군들의 눈에 띄였다. 그때 일군들은 이 문제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저녁시간에 진행된 모임에서 련대장 문철호동무의 절절한 목소리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땅속에 묻힐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량심에 남는 허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모두가 깨끗한 공민적자각과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우리가 건설하는 살림집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손색없이 일떠세워야 한다는 일군의 이야기는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모임이 끝난 후 한달음에 현장에 달려나간 련대의 건설자들은 구조물에 대한 보수작업을 깨끗이 진행하였다.

건설물에 대한 공정검사를 책임적으로 해나가는 리영철, 김영순동무들과 콩크리트치기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는 3중대 전투원들을 비롯한 련대일군들과 전투원들의 알뜰한 일솜씨에 의하여 다층살림집골조는 손색없이 일떠서고있다.

공사실적을 높인 비결

산림과학분원건설련대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건이 불리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작전을 바로하고 지휘를 잘하여야 생산과 건설에서 앙양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수도의 10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산림과학분원건설련대 전투원들은 대부분이 건설을 해본 경험이 없다. 이 단위가 다른 단위에 비하여 건설기계나 공사자재를 더 잘 보장받는것도 아니다. 하지만 련대의 공사실적은 다른 시공단위에 비하여 높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분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당의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누구나 한마음, 한뜻이 되여 창조적열정을 발휘하면서 맡은 살림집건설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있다.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이들의 남다른 일욕심을 보여주는 사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공사과정에 전문건설단위 못지 않게 혼합기와 용접기, 권양기를 비롯한 건설기계들을 그쯘히 확보한것도 그렇고 하루작업에 필요한 골재가 어김없이 현장에 쌓이고있는것도 공사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애써 일하는 이들의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는 실례로 되고있다.

강영남, 황명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내달리고있다. 일군들은 공사속도를 부쩍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필요한 자재도 모든 작업에 빈틈없이 앞세워 보장하기 위해 련관단위들을 수없이 찾고찾으며 걸린 고리를 능숙히 풀어나가고있다.

일군들의 뒤를 이어 전투원들도 하루하루의 작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맡은 일에 헌신하고있다.

련대의 공사실적에는 분원의 책임일군들과 여러 연구소종업원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도 깃들어있다. 분원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건설자재와 성의껏 마련한 물자를 건설장에 여러차례 보내주어 전투원들이 혁신의 숨결을 높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맡은 살림집건설과제를 제기일에 무조건 수행하려는 일군들과 건설자들, 종업원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련대는 건설장적으로 《일 잘하는 단위》, 《실적이 높은 단위》로 호평을 받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당의 수도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살림집건설을 다그치고있다.

애국의 마음 수놓아가며

와우도구역도시시설사업소 도로관리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로를 현대적으로 건설하는것과 함께 도로관리를 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와우도구역을 다녀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하고 깨끗하게 정리된 도로를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시원한 그늘을 주는 록음짙은 가로수들, 번듯하게 뻗어나간 도로들, 산뜻한 도로표식판들, 비물이 쭉쭉 빠지는 우수망들…

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와우도구역안의 도로들이 환하게 꾸려지게 된데는 감동적인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함박눈이 펑펑 쏟아지던 지난 2월 어느날이였다.

구역도시시설사업소의 정문으로는 비자루를 비롯한 도로관리도구를 손달구지에 싣고 들어서는 녀성들이 있었다. 룡수동 일군들인 김선화, 황명순동무들을 비롯하여 이 동에서 살고있는 수십명의 녀맹원들이였다.

자기들이 마련해가지고온 도로관리도구들을 시설사업소일군들에게 넘겨주며 동일군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동구호가 발표되였을 때였다.

동사무소로는 가두녀맹원들의 발걸음이 여느때없이 잦아졌다. 박춘월동무를 비롯한 몇명의 녀맹원들이 당조직을 찾아와 뜻깊은 올해에 어떻게 제집살림살이나 생각하겠는가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겠다고 제기해나선것이였다. 뒤이어 찾아온 수십명의 녀맹원들도 자기들에게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들속에는 두 아이의 어머니인 최금화동무도 있었다.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대고조진군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밀고나가라고 호소한 공동구호가 녀맹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던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동일군들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것이 차올랐다. 강성대국건설로 끓어번지는 벅찬 대고조의 현실에 뛰여들어 영예로운 참전자가 되려는 이들이 참으로 미더웠던것이다.

동일군들은 상급당조직과 토론하고 그들이 의향대로 도시시설사업소의 도로관리원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이런 감동깊은 사연을 알게 된 시설사업소일군들은 박춘월동무를 반장으로 하는 새로운 작업반을 조직하여 수십명의 녀성들이 이 사업소의 도로관리원으로 일하도록 하였다.

먼동이 터오는 매일 이른아침이면 고요속에 잠긴 거리에서 도로관리원들의 비자루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사르륵사르륵…

가정일을 뒤로 미루고 이른새벽부터 달려나와 도로를 알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애쓰는 도로관리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끝없이 이어진 도로에 펼쳐지였다.

처음에 이들은 거리나 깨끗이 쓸면 도로관리원의 임무를 다하는것으로 알았는데 막상 날이 흐르고보니 자질구레한것으로부터 힘에 부치는 일감들이 더 많아졌다.

더군다나 남포시에서도 중심지구에 있는 구역안의 도로들로는 하루에도 수많은 차들이 오고갔다. 그런것으로 하여 도로관리경험도 없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도로의 문화성을 보장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힘들 때마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맹세다지던 그날을 생각하며 용기를 내였다. 선군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일념안고 그들은 언제나 도로에서 살다싶이하면서 성실한 땀을 바치였다.

눈이 올 때도 남먼저 도로에 나섰고 비가 내릴 때면 물이 제때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 한밤중에도 거리로 달려나갔다.

크나큰 포부를 안고 사회에 진출한 첫날부터 이들은 보람찬 삶을 꽃피워가며 도로우에 애국의 마음을 수놓아갔다.

궂은일, 마른일을 가리지 않고 몸을 내대는 최금화동무, 이른새벽이면 남먼저 일터에 나와 일감을 잡으면서도 언제나 밝게 웃는 려명옥, 오남순동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웃음과 노래로 작업반원들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방현옥, 서옥녀동무, 눈이 내리면 남먼저 나오는 안순실, 한혜영, 장금순, 권경숙동무들…

도로관리에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바쳐가는것은 이들만이 아니였다. 누구라없이 작업반의 모든 성원들이 한마음을 안고 정성을 쏟아부었다.

어려운 일이 제기될 때면 도로관리원이 된 안해의 그 마음을 귀중하게 여겨주던 남편들도 거리로 달려나왔고 룡수동안의 일군들과 주민들도 도구들을 마련해가지고나와 그들의 일손을 도와주군 하였다.

이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에 떠받들려 구역안의 도로들은 날이 갈수록 그 면모가 일신되고있다.

본사기자 서승호

은을 내는 종합적인 축산기지

황주군 삼훈목장을 돌아보고

드넓은 황주긴등벌의 한쪽끝에 있는 삼훈리, 이 고장의 산기슭에 자리잡은 황주군 삼훈목장에서 많은 고기와 젖가공품이 쏟아져나오고 갖가지 집짐승종자들이 생산되여 농장들에 공급되고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한다.

얼마전 황주군을 찾았던 우리 역시 다를바 없었다.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전변된 삼훈목장이 군의 축산업발전과 인민생활에 한몫하고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는 취재길을 목장으로 이어갔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축산업을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확고히 마련되여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면 단백질식품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수 있습니다.》

황주군 읍에서 북동쪽으로 수십리길을 달려서야 우리는 삼훈리소재지에서 목장으로 들어가는 갈림길에 들어설수 있었다. 청신한 새벽공기를 들이키며 산기슭을 가까이하느라니 여러가지 과일나무들과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우거진 무성한 숲속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목장의 전경이 한눈에 안겨왔다. 마치 휴양소에 온듯 한 느낌을 주었다.

동행한 군일군은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훈리에 몸소 찾아오시여 축산업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였다는 이야기를 감동깊이 들려주었다. 영광의 그날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길러야 고기문제도 풀수 있고 현금수입도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축산업발전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새겨가는 우리의 마음은 뜨거웠다.

우리는 일군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목장의 방목도로를 돌아보았다. 방목도로는 참으로 멋있었다. 여기서 우리와 만난 다부진 몸매의 목장지배인은 방목도로는 100여리나 된다고 알려주고서는 손짓을 해가면서 주변의 군들과 린접한 산릉선을 돌고 봉우리를 넘으며 뻗어나간 이 도로가 생겨나던 오래전의 일을 추억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함흥시청년염소목장을 찾으신 소식이 전해진 그때 군일군들의 심장은 세찬 격정으로 높뛰였다.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라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이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바로 여기에 군의 축산에서 비약을 일으킬수 있는 열쇠가 있다.

군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삼훈리에 현대적인 목장을 건설할것을 결심하고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았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숲을 헤치고 벼랑길을 톺아오르며 인적없던 산속에 수십km에 달하는 도로를 새로 냈다. 그리고 도로주변에 풀판을 조성하고 염소, 양, 소우리들을 건설함으로써 많은 분장들로 이루어진 목장을 건설하였던것이다.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으며 종축염소우리에 들어서니 송아지보다 더 커보이는 염소무리가 류달리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얼핏 보기에도 수십kg은 될듯 하였다.

《우리 장군님의 은정이 깃든 우량품종의 종자염소들이랍니다.》

처음 염소기르기를 시작했을 때 젖생산을 늘이지 못하여 안타까와하던 일이며 크나큰 은정깃든 우량품종의 종자염소들을 받아안고 기쁨에 목이 메여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르던 일을 더듬는 지배인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자고 인공수정방법을 완성하여 우량품종의 염소를 늘이고 축산기술을 꾸준히 배워 앞선 사양관리방법을 받아들인 목장일군들과 종업원들에 대한 이야기는 감동없이는 들을수 없었다.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린 우리는 산중턱을 가로지르며 뻗어간 방목도로를 따라 계속 차를 달렸다. 여러개의 분장을 지나며 수십리길을 달려 무연한 등판에 올라서니 특색있게 건설된 양우리, 소우리들이 한눈에 바라보였다. 등판을 누렇게 덮은 소무리가 풀을 뜯고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양떼가 흰구름처럼 흐르고있었다.

우리의 눈앞에는 먼저 돌아보았던 돼지, 토끼우리들의 광경이 다시 펼쳐졌다. 우리마다에 갓 낳은 포동포동한 새끼들을 거느린 우량품종의 어미돼지, 토끼들이 있었는데 관리공들은 올해생산계획을 벌써 끝냈다고 자랑하였었다.

들리는 곳마다 자랑은 많았다. 산촌의 정서를 더해주는 소영각소리, 양울음소리를 뒤에 남기고 본장을 향해 한참 차를 달려서야 우리는 젖가공실에 들어설수 있었다. 쏟아지는 젖가공품마다에는 합리적인 생산방법을 완성하여 치즈의 맛을 좋게 하고 앞선 젖산균배양방법을 받아들여 산유생산을 늘인 기술자들의 고심어린 노력이 비껴있었다.

우리는 목장이 건설되여 몇해어간에 생산을 체계적으로 늘여 이룩된 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철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였다. 몇해전까지만도 고작 수십마리의 염소를 기르면서 젖이나 짜던 목장이 이제는 여러가지 젖가공품은 물론 갖가지 집짐승종자까지 생산공급하는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그 덕을 크게 보고있었다. 제힘으로 애써 가꾼 행복의 열매를 따게 된 이들의 기쁨이 그대로 우리의 가슴에도 넘쳐났다.

어느덧 붉게 타는 저녁노을이 목장을 아름답게 물들이고있었다. 아쉬운 마음으로 목장을 떠나는 우리에게 이곳 혁신자들은 가을에 오면 또다시 놀라운 현실을 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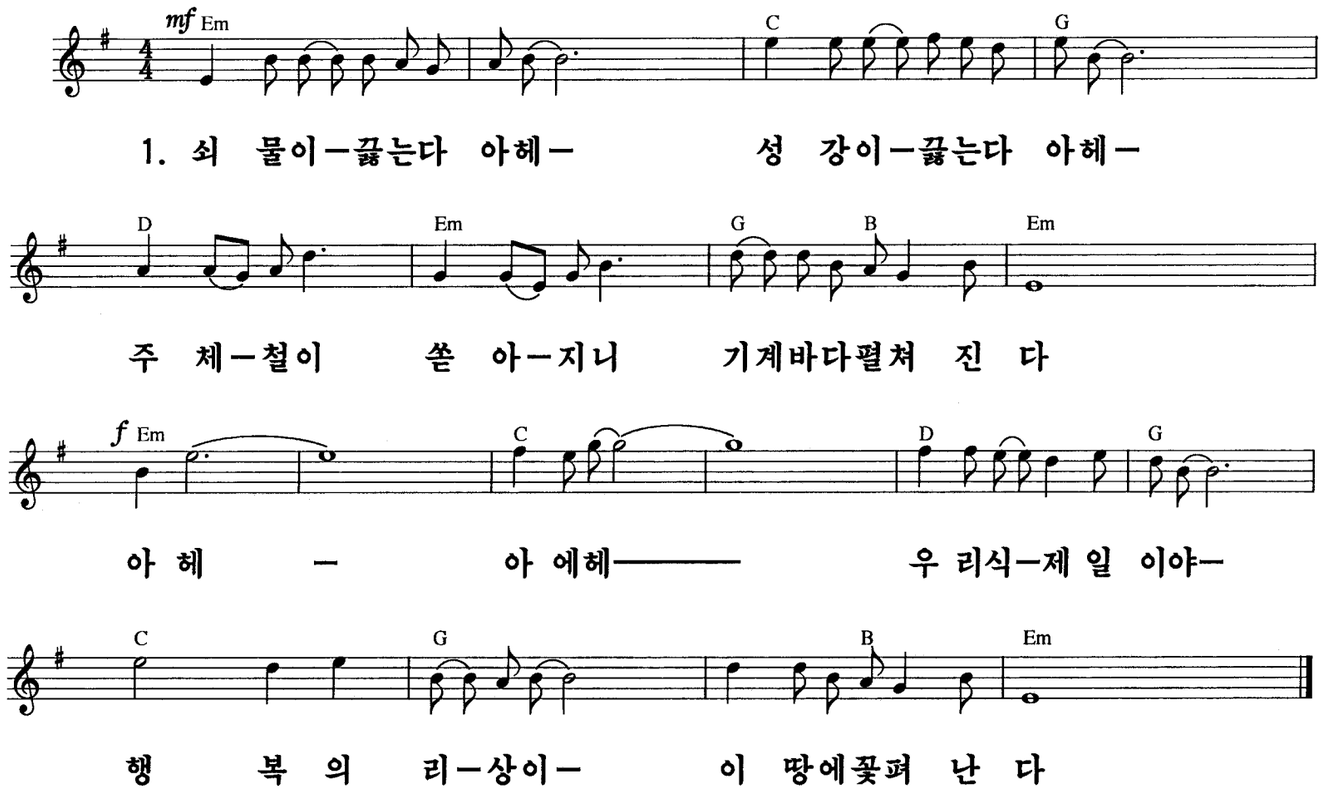
《우리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만 하면 꼭 변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실천을 통하여 심장에 새긴 철리입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래일에 대한 락관으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안아오게 될 목장의 희한한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고있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정영철

주 체 철 제 일 이 야

작사 리 권
작곡 신일재



2. 쇠물이 끓는다 아헤
기쁨이 넘친다 아헤
주체철이 풍년드니 오곡백과 물결친다
아헤 아에헤 우리것 제일이야
인민의 천만복이 이 땅에 꽃펴난다

3. 최첨단기술로 아헤
세계를 앞선다 아헤
주체철로 강성대국 대들보 얹어간다
아헤 아에헤 우리 힘 제일이야
더 좋은 앞날이 이 땅에 꽃펴난다

아헤 장군님 안아오신
우리의 주체철 세상에 제일이야

주체적과학영화창작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과학영화촬영소 (당시)를 현지지도하신 때로부터 40년이 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59 (1970) 년 7월 11일 촬영소를 찾으시여 과학영화창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과학영화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지난 기간 창작가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과학영화사상과 리론을 가슴깊이 새기고 수많은 과학영화들을 창작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과학교육영화촬영소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절박하게 해결을 기다리며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문제들을 선택하여 가치있는 과학교육영화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창작가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는 과학기술성과자료들과 앞선 생산방법을 보여주는 과학영화들을 만들어내놓았다.

강선로동계급이 만든 초고전력전기로와 그 우월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통속적으로 소개한 과학영화 《초고전력에 의한 강철생산》, 《강철공업의 정수 초고전력전기로》와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데 기여하는 《중소형발전소건설》, 《플라즈마에 의한 보이라불지피기》 등의 영화들은 금속, 전력공업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고있다.

《기류식석탄분쇄기》, 《공기방석식벨트콘베아》, 《쇠동발에 의한 얇은층채탄방법》, 《레루와 차바퀴의 수명을 늘이는 윤활봉》을 비롯한 과학영화들은 석탄, 철도운수부문 등에 도입된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보여주고있다.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반영한 영화들도 많이 제작되였다. 당의 경공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을 추동하는 과학영화들과 실리가 큰 농기계의 하나인 탈곡기와 능률높은 물논회전써레, 유기질복합비료에 대한 과학기술자료들, 겹재배에 의한 두벌, 세벌농사방법, 동해안 모기르기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설한 과학영화들은 근로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첨단과학기술을 반영한 과학영화들가운데는 《함유연생산체계》, 《CNC공작기계》, 《레이자》, 《나노공학》, 《유전자공학》, 《3세대이동통신》을 비롯하여 근로자들에게 최신과학기술지식과 상식을 주고 청소년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주는 과학영화들이 들어있다.

과학영화 《비날론공업과 인민생활》, 《자연흐름식상수도》, 《현대적인 타일생산》은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우수한 전통, 풍습을 보여주는 과학영화 《유구한 력사로 빛나는 조선》, 《고구려무덤벽화》, 《민족음식 썩장과 담북장》, 인민생활향상과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강음료 은정차》, 《무병장수》(전 40편) 등이 창작되여 널리 보급되였다.

촬영소일군들과 창작가들은 성과에 토대하여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작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영웅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갈 결의에 넘쳐 있다. —김기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김 광 혁 찍음

원 산 렬 사 릉 준 공

원산렬사릉이 훌륭히 건설되였다.

렬사릉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모든것을 바친 렬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였다.

그들중에는 반일애국렬사들인 김창선, 정수영, 최중손, 조홍히, 안기옥, 전구하 등이 있다.

준공식이 11일에 진행되였다.

강원도내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유가족들, 근로자들이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렬사릉에 화환과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백계룡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원산렬사릉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혁명의 길에서 삶을 빛내인 전사들을 잊지 못해하시며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의 기념비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떨쳐나선 도내근로자들이 짧은 기간에 렬사릉을 훌륭히 일떠세운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렬사들이 지녔던 고결한 정신세계를 따라배워 순간순간을 애국으로 수놓으며 유가족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앞장에 서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경제강국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혁명적대고조의 폭풍을 거세차게 일으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렬사릉을 돌아보았다.

대용연료로 전기를 생산하여 덕을 본다

함경북도 시, 군농기계작업소들에서 대용연료에 의한 전기생산으로 덕을 크게 보고있다.

이곳 농기계작업소들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전기로 뜨락또르와 농기계를 수리하고있으며 여러가지 부속품들을 생산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대용연료를 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를 세운데 기초하여 모든 농기계작업소들에서 이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도록 하였다.

어랑군농기계작업소를 시범단위로 꾸리고 경험을 창조한 다음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회령시, 길주군, 명간군, 화대군농기계작업소 로동자, 기술자들은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발동발전기와 가스발생로를 만들어 설치하는 등 생산공정을 잘 꾸려놓고 전기생산을 늘이고있다.

김책시농기계작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알탄에 의한 전기생산방법을 완성하였으며 명천군, 경원군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속에 자체실정에 맞는 생산방법을 도입하여 성과를 이룩하였다.

갈탄에 의한 전기생산방법을 완성한 온성군농기계작업소와 경성군, 연사군, 경흥군, 청진시 청암구역을 비롯한 여러군, 구역농기계작업소들에서도 지방에 흔한 대용연료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여 뜨락또르를 비롯한 농기계들의 수리정비를 제때에 보장함으로써 농업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지금 도에서는 당창건 65돐과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대용연료에 의한 전기생산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혁신의 기상 나래치는 건설장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의 청년돌격대원들이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공사속도를 높여 1호발전소 조기조업을 위한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현장련합지휘부의 일군들은 청년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 전투지휘를 패기있게 하고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선군청년전위의 기개를 힘있게 떨치고있는 돌격대원들은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속도를 훨씬 높이고있다.

그들은 선별계통을 새로 꾸리고 벨트콘베아와 기중기 등 기계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수백㎥의 혼합물을 보장함으로써 언제타입에서 놀라운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서 수송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한 운전사들은 종전에 비하여 2배로 높아진 하루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물길굴확장 및 바닥콩크리트치기를 끝낸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려단의 청년돌격대원들은 《청춘을 빛나게 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투장들마다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원형콩크리트피복공사를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다.

황해남도려단에서는 치렬한 돌격전을 벌려 맡은 물길굴굴뚝기를 짧은 기간에 끝냈으며 함경남도려단 돌격대원들도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나가고있다.

량강도려단 청년돌격대원들은 난관을 이겨내며 세멘트와 강재수송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당창건 6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열의밑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발전소건설에서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가고있는 청년전위들의 영웅적투쟁으로 완공의 날은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9돐 기념연회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체결 49돐에 즈음하여 9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연회가 진행되였다.

연회장에는 우리 나라 기발과 중국기발이 드리워져있었다.

연회에는 아부라티 아부두러시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 장지군 중국외교부 부부장, 하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장조리,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과 기타 관계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최병관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은래동지와 함께 조중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조인하시여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토대우에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기초를 마련하시였다고 언급하고 지난 49년간 두 나라 인민이 조약의 정신에 따라 여러 분야에 걸쳐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해온데 대하여 렬거하였다.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께서 친히 마련하고 물려주신 귀중한 유산이며 두 나라 인민의 공동의 재부인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오늘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깊은 관심속에 계속 좋게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난 5월에 진행하신 중국방문은 조중친선이 국제정세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여도 변함없이 영원할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변이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의도에 맞게 여러 분야에서 계속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주석은 1961년 7월 11일 주은래총리와 김일성주석께서 중조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신 후 쌍방은 조약의 정신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적극 진행하여 각기 나라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최근년간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의 관심속에 중조관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올해 5월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중국을 방문하시여 호금도총서기를 비롯한 중국의 당과 국가지도자들과 많은 중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시고 중조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시였다.

중국측은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있으며 이를 부단히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에 따라 조선동지들과 함께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 이룩하신 중요한 공동인식을 훌륭히 관철함으로써 중조관계의 가일층 발전을 추동하고 두 나라, 두 인민들의 복리를 더욱 도모해나갈것이다.

그는 최근년간 조선동지들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해 동지로서, 벗으로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정일총비서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이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중친선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우리 당의 령도아래 무릉도원으로 전변된 사회주의문화농촌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강계청년공원유희장이 새로 일떠섰다

풍치수려한 장자강반에 강계청년공원유희장이 새로 일떠섰다. 강계청년공원유희장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크나큰 은정속에 마련된 문화휴식터이다. 유희장에는 대관람차, 우주비행선을 비롯한 유희시설들이 설치되여있으며 청량음료점도 꾸려져있다.

도내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실현할 일념안고 유희장건설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일군들은 공사를 짧은 기간에 완공하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벌리면서 건설자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다. 건축공사를 맡은 청년돌격대원들은 불리한 조건에서도 수천㎥의 기초파기를 해제끼고 콩크리트치기를 앞당겨 끝냄으로써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련관된 공장의 로동계급은 집체적지혜와 힘을 합쳐 덩지가 큰 유희설비들을 성과적으로 운반하였으며 조립설치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하였다. 강계시내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도 건설자들의 일손을 도와 록지조성, 지대정리 등의 공사를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자강땅에 일떠선 강계청년공원유희장은 인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절세위인의 숭고한 헌신, 위대한 사랑》

지금 남녘겨레들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불철주야로 위대한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뜨거운 흠모의 정을 터치고있다. 그들은 한결같이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로정은 강성대국의 미래를 앞당겨오는 비약의 활로》, 《그분의 현지시찰은 단순한 시찰이 아니라 쪽잠과 줴기밥으로 날과 달을 보내시고 눈보라, 비바람을 맞으시며 걷고걸으시는 숭고한 헌신, 위대한 사랑의 행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남조선의 현대사 연구원 장일현은 《위대한 충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우리가 걸음을 많이 걷고 밤잠도 덜 자면서 고생을 하면 민중이 보다 행복해지는것만큼 그들에게 헌신하는데서 인민의 충복된 자부를 찾을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순간의 휴식도 없이 끊임없는 로고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서울의 어느 한 퇴직교수는 집에 찾아온 제자들과 함께 출판물에 모셔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령수님께서는 민중의 충복으로 일하는 거기에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시며 불면불휴의 사랑의 길을 걷고걸으신다. 민중을 위함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그분의 정치신조이다. 그분께서는 가시는 곳마다에서 민중과 기쁨도 고난도 함께 나누고 국사도 의논하시며 그들과 한식솔이 되신다. 그리하여 이 북민중모두는 김정일령도자님을 친어버이로, 군병사들은 우리의 최고사령관으로 우러러 칭송하며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속에서 울려나오는 이러한 칭송의 목소리들은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새로운 혁명전설을 창조하시며 인민을 위한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를 수놓아가시는 절세의 위인에게 매혹된 진정의 분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소식을 접할 때마다 숭엄한 감정에 휩싸이군 한다는 인천에서 사는 로동자 강호일은 로조원들앞에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은 민중의 기쁨이 커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민중화원이 더욱 개화만발하는 로정이다. 민중을 찾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걸음걸음에서 어제는 전대미문의 〈고난의 행군〉이 락원의 행군으로 전환됐고 오늘은 겨레의 행복과 번영의 씨앗이 움터나 탐스러운 열매로 주렁지고있다.》라고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이북바로알기회 회원 김진수는 어느 한 모임에서 이렇게 심장의 격정을 터쳤다.

《참으로 력사가 알지 못하는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희한한 민중세상을 안아오시는 절세의 위인의 헌신적인 장정은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우리 이남민중이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태양, 통일의 구세주로 굳게 믿고 따를 때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겨살 날은 꼭 올것이다.》

세계정치사에 일찌기 볼수 없었던 독창적인 군중시사상을 내놓으시고 탁월한 선군령도로 우리 공화국을 민족수호의 불패의 보루로 되게 하여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께서 계시여 우리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조국통일도 머지않아 이룩될것이라는 신념의 목소리들도 남녘인민들속에서 뜨겁게 울려나오고있다.

남조선의 한 력사학교수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선군의 전설적영웅》, 《평화의 수호자》라고 하면서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 민족은 당당한 정치강국민족으로 세상에 이름떨치게 된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위대한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과 안녕을 수호해주시는 민족의 구세주이시다.》라고 높이 격찬하였다.

또한 어느 한 정치평론가는 《이 땅의 평화가 이북의 선군총대에 의해 지켜지고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평화의 덕을 누구보다 톡톡히 보고있는 우리 민중들로서는 당연히 평화의 수호자이신 김정일령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줄로 안다.》고 하였다.

《한여름이면 수많은 국가지도자들이 자기의 안락을 위해 별장으로, 명승지들로 가지만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반대로 민중의 행복을 위해 산발들을 넘으시며 선군령도의 자욱자욱을 이어가신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다는 일념으로 미국의 침략책동에 맞서고계신다.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가꾸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계시는 인민의 지도자는 바로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은 정의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걷고계시는 정열의 화신이시다. 제아무리 강력한 적이라도 민족의 리익을 침해한다면 지구끝까지라도 찾아가 징벌하고야 말겠다는 철의 신념, 그것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애국애족의 정신이다.》

그가 지식인이건, 로동자이건, 학생이건 남녘겨레들은 누구나 이처럼 이 땅의 평화와 행복이 어디서 오는것인지, 오늘 온 세상에 남김없이 떨쳐지고있는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어떻게 마련된것인지를 똑똑히 알고있다.

조국과 겨레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그이께서 쉬임없이 헤쳐오신 그 선군장정의 길이 있어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영광과 승리가 펼쳐질수 있은것이 아닌가. 정녕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조국과 겨레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선군의 총대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하기에 남녘의 겨레들은 선군에 오늘의 삶도 있고 조국통일의 래일도 있다는 믿음을 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한마음으로 높이 받들고 지지옹호해나서고있다.

최근 남조선의 범청학련 남측본부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이런 글이 올라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남녘의 동포이건, 북녘의 동포이건 우리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라 할것없이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을 영원한 민족의 구심점으로 높이 모시고 그분의 선군정치를 받드는데 앞장서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겨레의 미래를 확립하는 길이며 후대들의 행복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다.》

자기 운명을 구원해주고 지켜주는 고마운 은인을 따르고 받드는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시고 끊임없는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며 겨레의 행복과 민족의 부강번영의 길을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그 무엇으로도 다 갚지 못할 장군님의 그 은덕이 너무도 고마와 남녘겨레는 그토록 온넋을 다해 그이를 따르고 받드는것 아니랴. 진정 이 땅의 평화와 겨레의 행복을 위해 선군령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심장으로 우러르며 오로지 그이의 안녕만을 바라는 남녘겨레들의 순결한 마음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거워질것이다.

김현철

정세를 극단에로 몰아가는 도발행위

함선침몰사건과 관련한 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외세와의 《공조》밑에 날로 강화되고있다. 보도된바와 같이 미국 하와이연안해역에서 7월 1일부터 시작된 《림팩》합동군사연습이 8월 1일까지 한달동안 감행되게 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도발적인 전쟁연습에 괴뢰들은 이지스함과 잠수함 등 숱한 무력을 참가시켰다. 한편 괴뢰호전광들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서해해상에서 미국과 함께 대규모적인 《련합대잠수함훈련》을 기어이 강행하겠다고 떠들고있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조선반도의 정세를 폭발직전의 국면에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전쟁책동이다.

미국이 추종국가들을 동원하여 태평양상에서 정기적으로 벌리고있는 《림팩》합동군사연습의 기본과녁은 우리 공화국이다. 우리에 대한 해상봉쇄와 선제타격을 노린 《림팩》합동군사연습의 위험성과 도발적성격은 이미 잘 알려져있다. 괴뢰들이 외세의 북침각본에 따라 이 전쟁연습에 많은 무력을 투입하고있는 그자체가 우리에 대한 도발이며 도전이다.

이번 《림팩》합동군사연습에서 괴뢰들이 맡고있는 역할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지금 연습에 참가한 괴뢰해군무력은 미해군과 함께 미항공모함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면서 《다국적수상전투단》에 소속되여 기본작전임무를 수행하고있다. 이런 상황은 괴뢰군부가 이전과는 달리 《림팩》합동군사연습에 매우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참가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남조선괴뢰들의 《림팩》합동군사연습참가는 그들이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수행의 돌격대로 적극 나섰으며 외세와 작당하여 우리를 무력으로 해치려 한다는 뚜렷한 증거이다. 리명박패당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에 적극 추종하여 머나먼 하와이연안해역에까지 찾아가 북침화약내를 질게 풍김으로써 외세의 전쟁하수인, 극악한 호전광으로서의 정체를 다시금 낱낱이 드러냈다.

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서해해상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려 하는것도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호전광들은 이미 지난 5월말 함선침몰사건에 대한 《군사적대응조치》에 대해 떠들며 해군 2함대를 동원시켜 서해해상에서 우리에 대한 《무력시위》의 성격을 띤 위험한 《대잠수함기동훈련》을 감행한바 있다. 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벌리려 하는 《련합대잠수함훈련》은 이러한 도발적인 《무력시위》의 절정이다. 며칠전 《토마호크》미싸일 154기를 탑재한 미7함대소속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부산항에 나타났었다. 내외여론은 미국핵잠수함의 부산입항목적이 서해해상에서의 합동군사연습을 위한 사전움직임이라고 평하고있다. 괴뢰호전세력이 극도의 긴장이 감돌고있는 서해해상을 발화점으로 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는것은 더없이 명백해지고있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내리기마련이다. 괴뢰호전광들이 미제와 함께 전쟁불장난소동을 계속 벌리다가 그것을 전면적인 북침전쟁으로 확대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담보할수 없다. 북침전쟁열에 들떠 물덤벙술덤벙 날뛰는 괴뢰패당에 의해 조선반도의 정세가 위기일발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책임진 우리는 미제와 작당하여 북침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역적패당의 도발행위에 대해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다. 괴뢰들이 외세와 작당하여 강행하는 전쟁불장난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과 같은 어리석은 자멸행위로밖에 될것이 없다. 만약 보수패당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끝내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치는데로 나간다면 선군으로 백배해진 우리 혁명무력의 무자비한 섬멸적보복타격에 뼈도 추리지 못하게 될것이다.

엄일규

조국통일3대원칙을 굳게 틀어쥐고나갈것을 호소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가 4일 《조국통일3대원칙을 높이 들고 미군과 반통일, 반민족세력을 몰아내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로부터 38돐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날을 맞으며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족의 존엄과 단합,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철의 원칙으로 새긴 조국통일3대원칙을 더욱 굳세게 틀어쥐고 6.15공동선언, 10.4선언리행에 모든것을 다 바치며 반미, 반전평화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 의지에 넘쳐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미국과 리명박《정권》의 《천안》호침몰사건조작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함선침몰사건을 계기로 당국이 북침전쟁연습, 군사분계선일대에서의 심리전재개, 통일운동단체와 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 등 반통일대결책동에 매달리고있다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성명은 외세의존과 반통일을 일삼는 민족반역무리들을 겨레의 이름으로 준엄히 심판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온 겨레가 《우리 민족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미군과 민족반역자들을 이 땅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할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6.15공동선언리행과 반전평화를 위해 투쟁할것을 선언

남조선의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가 5일 《7.4공동성명정신 계승하여 6.15공동선언리행, 반미반전평화운동을 전면적으로 벌려나가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한 7.4공동성명발표 38돐이 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근본립장과 방도를 밝힌 7.4공동성명은 우리 겨레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6.15공동선언에 의해 그 생활력과 정당성이 더욱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고 성명은 주장하였다.

성명은 오늘 청년학생들앞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리행과 반전평화의 길로 전진해나가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밝혔다.

당면하게는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는 리명박《정부》와 미국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여야 한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미국과 리명박《정부》가 《천안》호침몰사건을 계기로 전쟁연습과 무력증강, 반공화국심리전재개에 열을 올리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7.4공동성명의 정신에 배치되는 이러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배격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단체가 반미반전, 리명박퇴진투쟁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책동을 단죄

남조선신문들이 《안보》를 구실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한 리명박역적의 망동을 단죄하였다.

《경향신문》은 6월 29일 《전시작전권연기는 안보리익아닌 정치론리》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리명박이 미국당국자에게 미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5년으로 연기해줄것을 애걸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당국이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한것은 보수층의 《안보불안》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것이라고 사설은 주장하였다. 보수세력이 지금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미국과의 《동맹》이 와해된다고 아우성치며 이를 반대해왔다고 하면서 사설은 진실로 안보를 중시하는 《정권》이라면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여나지 못하는 이런자들과 휩쓸리지 말았어야 하였을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사설은 리명박이 민심을 잃어 텅빈 자리를 보수층의 집결과 지지로 메우고 민중의 안보를 희생시켜 정치적리익을 얻으려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날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결정에 대한 전면적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청와대》가 연기리유에 대해 《준비부족》이니, 《안보불안심리》니 뭐니 하고 둘러대는것은 당국이 보수세력의 립장을 더 앞세웠음을 인정하는것이나 다름없다고 까밝혔다. 《국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사태를 전면적으로 검증하고 중대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라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의 목적과 협상과정, 론의내용모두를 전면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꼴롬비아단체

불레찐 《미국, 승리하지 못한 첫 전쟁》 발행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꼴롬비아조선친선문화협회에서 6월 26일 불레찐 《미국, 승리하지 못한 첫 전쟁》을 발행하였다.

불레찐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띠게 되였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57년전인 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에 조인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의 고백이다.

1950년대 조선전쟁을 도발할 때 미국은 저들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믿고 청소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쉽게 정복할수 있으리라고 타산했었다.

미국은 조선전쟁에 자기 륙군의 3분의 1, 공군의 5분의 1, 태평양함대의 대부분 그리고 15개 추종국가군대와 남조선군 등을 포함한 200여만명의 병력을 동원하였다.

불레찐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고 막대한 군사비를 퍼부으며 《조선전쟁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였다.》고 호언장담하던 미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입고 대참패를 당한데 대하여 수자적으로 렬거하고 이것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에서 입은 손실의 근 2.3배나 된다고 밝혔다.

불레찐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당시 엄청난 손실과 참혹한 패전으로 하여 미국지배층안에서는 서로 책임을 따지고 남에게 전가하는 등의 추태가 벌어졌다.

결국 미국은 항복서나 다름없는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조선정전협정의 체결과 함께 미국에서는 패전을 통탄하는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개국이래 미국의 위신이 전세계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땅에 떨어진적은 없었다.》(미극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신화는 깨여지고말았다. 우리는 남들이 생각하던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아니였다.》(이전 미국무장관 마샬)

《솔직히 말하면 조선전쟁은 커다란 군사적재난이며 잘못고른 장소에서 잘못 고른 시간에 잘못 만난 적과 싸운 잘못한 전쟁이였다.》(미합동참모본부 의장 브랫들리)…

조선전쟁은 다시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일떠선 사람들, 령도자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결연히 떨쳐나선 인민과 군대를 굴복시킬 힘은 세상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또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평화를 유린하고 침략과 전쟁을 즐기는자들에게 차례질것은 죽음과 참패밖에 없다는것을 심각한 력사의 교훈으로 새겨주었다.

미국은 57년전의 참패와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청탁과 구걸로 악명떨치는 매국노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등장한이래 악화일로를 걷던 북남관계는 함선침몰사건을 계기로 끝끝내 풍지박산나고 전쟁위험이 극도로 고조되고있다. 이런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된것은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소동의 제일선에 선 괴뢰외교통상부 장관 류명환과 같은 희세의 매국역적들이 남조선에서 살판치고있기때문이다.

얼마전 리명박역도와 함께 해외행각길에 오른 류명환역도가 부린 추태도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환장한 류명환은 체질적악습그대로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내들고 또다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반공화국《제재강화》와 《공동보조》,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의 《협력》을 다른 나라들에 적극 구걸하였다.

민족공조를 공공연히 부정하고 외세와의 《동맹강화》를 부르짖으며 동족압살을 위해 지랄발광하는 리명박《정권》의 사대매국외교를 직접 실행해온 추악한 매국노가 바로 류명환이다. 류명환은 동족압살을 노린 청탁과 구걸외교로 악명을 떨쳐왔다. 그가 《외교통상부》 장관의 감투를 쓴 후 줄곧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모해압살하기 위해 얼마나 극성스럽게 비럭질에 매달려왔는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우리가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했을 때 그것을 터무니없이 《미싸일발사》로 걸고든 류명환역도는 국제사회의 그 무슨 《강력한 대응》이니, 《제재결의의 엄격한 집행》이니 하고 떠들어대면서 외세에 동족압살을 끈덕지게 청탁해나섰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불순한 반공화국대결문서인 《의장성명》이라는것이 나왔을 때는 그것이 《큰 성과》라고 악담질을 하였으며 즉시 일본으로 날아가 상전의 옷자락을 붙들고 《일본이 좋은 일》을 했다고 발라맞추는 얼빠진 망동도 부리였다. 그뿐이 아니다. 역도는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구실로 위험천만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전면참가에 대해 고아대며 그 실현을 위해 맨 앞장에서 분주탕을 피웠다. 지어 자기와는 상판도 없는 개성공업지구문제에까지 코를 들이밀고 외세와 작당하여 그 사업에 제동을 걸려고 미쳐날뛰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항간에서 류명환에 대해 《외세의 피줄을 받아 배달민족에 붙어 기생하는 국적불명의 사생아가 분명하다.》고 비난하는 소리까지 나돌았겠는가.

류명환은 《핵을 이고는 통일도 남북관계도 힘들다.》고 고아대는 집권자의 《선핵포기》망발에 극구 맞장구를 치면서 외세를 등에 업고 반공화국핵소동에도 집요하게 매달리였다. 역도는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마저도 핵문제를 코에 걸고 악랄하게 헐뜯으며 지어 《대북핵선제공격》 청탁도 서슴지 않았다.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며 어떻게 하나 해치려고 기를 쓰고 날뛰는 류명환역도의 추악한 몰골은 괴뢰해군함선침몰사건을 계기로 더욱 낱낱이 드러났다. 사건이 터지자 역도는 30여개 나라의 남조선주재 외국대사들을 《외교통상부》에 불러들여 그 무슨 《증거자료》를 보여준다, 설명한다 하면서 저들을 적극 지지해줄것을 청탁하였다.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직접 돌아치면서 저들의 《대북외교정책방향은 북을 서서히 옥죄는것》이니, 《국제금융기구가 북을 〈검은 목록〉에 올려야 한다.》느니 하고 고아대는 등으로 국제적인 반공화국포위망을 형성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였다.

함선침몰사건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는 그 무슨 《서한》이라는것을 유엔에 제출하여 《엄중하게 대응》해줄것을 요청한자도 류명환이며 참여련대가 함선침몰사건《조사결과》에 의문을 표시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고 하여 게거품을 물고 《경악스런 사실》이니 뭐니 하고 광기를 부린 리성잃은 대결분자도 류명환이다. 얼마전에도 역도는 외세에 의거하여 파산의 운명에 처한 저들의 반공화국모략극에 활기를 불어넣을 심산으로 민족적존엄과 자존심도 없이 유엔안보리사회성원국들을 대상으로 비굴하고 역겨운 구걸질에 여념이 없이 돌아쳤다.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모해압살하기 위해 미쳐돌아가는 류명환이야말로 더이상 살려두어서는 안될 인간쓰레기, 매국역적이다.

우리 민족내부에 이런 역적배들이 활개치고있는탓에 북남관계가 여지없이 파탄되고 이제는 민족의 운명마저 위태롭게 되고있다.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이 보장되기 위해서도 그에 엄중한 장애로 되는 류명환역도와 같은 악질반역자는 지체없이 청산되여야 한다.

본사기자 라설하

단평

부패왕초의 훈시

며칠전 리명박역도가 졸개들속에서 일어난 추문사건을 거들면서 《친인척, 권력형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린청을 돋구었다. 참으로 철면피한 《책망》이고 호통질이라 해야 할것이다. 이를 두고 남조선항간에서는 부정부패의 왕초가 무슨 체면에 목을 쳐들고 훈시질인가고 조소하고있다. 그럴수밖에 없다.

집권전부터 부동산투기로 뭉치돈을 그러모아 비난의 대상이 되였던 리명박역도에게는 집권후에도 권력형부정부패행위로 인한 뒤소문이 끊길새 없었다. 리명박의 《형님권력》으로 정국이 휘청거리고 역도의 처사촌이 《국회의원선거》과정의 사기협잡으로 수십억원의 검은돈을 꿀꺽하여 물의를 일으킨것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이런 판에 권력형부정부패소리가 나오면 누구보다 자라목이 되고 벙어리가 되여야 할 리명박이 도리여 제편에서 그 무슨《권력형비리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쳤으니 그야말로 뻔뻔스러운데서는 역도를 당해낼자 없을상싶다. 그것은 마치 도적두목이 자기 패당에게 《정직성》을 훈시하는 꼴이다.

대내외정책의 총파산으로 최악의 집권위기에 몰린 역도는 설상가상으로 권력형부정부패사건까지 터지자 여론의 규탄을 모면하기 위해 제처지도 모르고 망신스러운 수작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런 철면피한 말장난으로 파연 자기에게 쏠리는 민심의 화살을 피할수 있겠는가. 남조선에서 온갖 권력형부정부패행위를 끝장내자면 그 왕초인 리명박역도부터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주장이다.

리효진

일본당국의 총련시설강탈책동을 규탄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가 1일 론평을 통해 일본당국의 총련시설강탈책동을 규탄하였다.

론평은 일본의 정리회수기구가 최고재판소에 총련중앙본부가 사용하고있는 토지와 건물을 경매할데 대한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미전부터 정리회수기구가 총련중앙본부의 토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여러차례에 걸쳐 시도해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또다시 이 문제를 들고나온것이라고 론평은 밝혔다.

이것은 총련에 대한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략탈행위라고 론평은 비난하였다.

론평은 총련중앙본부의 모든 시설은 민족의 넋을 지키고 가꾸어가기 위한 동포들의 모임과 문화활동, 교육 등에 필요한 생활의 터전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감행한 략탈범죄에 대해 아직도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일동포들의 신성한 재산까지 강탈하려 들고있다고 론평은 단죄하였다. 론평은 일본정부의 총련시설강탈책동은 우리 민족의 심판을 받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겨레의 드팀없는 6.15위업고수의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에 즈음하여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련합성명은 6.15공동선언에 자주도 있고 평화도 있고 통일도 있으며 민족의 번영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련합성명은 우리 겨레의 지향과 의지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다.

지금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할 북남관계는 그와 반대로 위험한 전쟁국면으로 치닫고있다. 조국통일운동앞에 엄중한 난국이 조성되고있는 때에 우리 공화국의 정당, 단체들이 련합성명을 통하여 민족최고의 통일강령인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는것을 유일한 타개책으로 제시한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6.15의 위업을 고수하고 더욱 추동해나가는것은 가로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지방자치제선거》결과는 남조선인민들이 무엇을 요구하고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선거》는 6.15를 지지하는 통일민주세력과 그것을 부정하는 반통일세력사이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벌어졌다. 6.15지지세력의 압도적인 승리와 보수패당의 대참패로 막을 내린 《지방자치제선거》의 결과는 당연한것이다.

남조선괴뢰당국은 《선거》를 앞두고 동족대결소동을 악랄하게 벌리면서 반6.15의 역풍을 몰아오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지난 3월 괴뢰들이 미국과 공모결탁하여 함선침몰사건을 조작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보수패당은 함선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걸고드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고 《단호한 대응》이니, 《응징》이니 하며 정세를 미친듯이 파국에로 끌고갔다. 한마디로 모략적인 《북풍》소동으로 《선거》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자는 술책이였다.

보수패당이 《선거》에서 6.15지지세력들을 누르고 득세할 경우 북남선언들의 고수리행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더 큰 난관과 장애가 조성될것은 명백하였다. 역적패당은 군사분계선일대에서 반공화국심리전을 재개하고 미제와 야합하여 대규모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려고 획책하면서 새 전쟁도발을 노린 무모한 무력도발행위를 더욱 로골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언제 핵전쟁의 버섯구름이 치솟을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하지만 역적패당의 망동은 오히려 남조선각계의 치솟는 분노와 6.15지지옹호의 기운을 더욱 불러일으키는 도화선이 되였다. 북남선언들을 짓밟으면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해 날뛰던 역적패당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 대참패를 당하고말았다.

지금 남조선각계에서는 북남선언들을 지지하면서 그 리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이것은 남녘인민들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은 6.15정신은 절대로 빼앗을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오늘의 정세는 우리 민족성원들로 하여금 6.15의 기치밑에 더욱 굳게 단합하여 반통일세력의 악랄한 도전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6.15위업을 고수하기 위한 거세찬 전민족적투쟁의 열풍을 일으켜나가는 바로 여기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으며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이 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것이 없다. 지금 리명박역적패당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당한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대신 오히려 그 앙갚음으로 통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소동에 매달리면서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 더우기 북남선언들을 《리행하지 않는것은 북》이라는 파렴치한 망발들을 늘어놓으면서 저들에게 쏠린 분노의 화살을 딴데로 돌리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있다. 역적패당이 《주적개념》부활책동과 반공화국심리전재개놀음, 미제와의 북침합동군사연습에 매달리는것은 6.15를 부정하는 역적패당의 반민족적립장이 꼬물만큼도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을 말해준다. 피뢰당국의 대결소동이 불러올것은 핵전쟁참화밖에 없으며 거기서 리익을 볼것은 침략적인 외세이다. 민족의 리익과 운명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공조와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이런 반역의 무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선언들의 리행은 고사하고 온 겨레가 한시도 편안히 살수 없다.

반통일역풍을 통일의 열풍으로 몰리치는것은 온갖 시련을 뚫고 6.15통일시대를 떠밀어온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6.15를 지지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반통일세력의 대결전쟁기도를 단호히 꺾어버려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역적패당에게 패배를 안김으로써 6.15의 기치아래 뭉친 힘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자그마한 승리에 불과하며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문제는 앞으로 남조선인민들이 단합의 위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하는데 있다. 본성이 변하지 않는 반통일세력을 견제만 해서는 6.15를 지킬수 없으며 자주, 민주, 통일의 꿈을 결코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역적패당을 력사의 무덤에 완전히 매장해버릴 때까지 기세를 늦추지 말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 투쟁해나가야 한다.

우리 겨레의 정의로운 6.15지지옹호의 불길은 이 땅에서 핵전쟁위험이 영원히 사라지고 민족의 자주권이 완전히 실현되는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계속 거세차게 타번질것이다.

박철준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승리의 력사를 수놓아온 탁월한 령도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있다. 특대형모략극인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한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은 《군사적보복》을 운운하며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이 무모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배후에서 조종하는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이번 함선침몰사건책임이 마치도 우리에게 있는것처럼 몰아붙이면서 세계무대에서 《북조선위협》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키고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조선전쟁에 대비한 전투태세를 갖추도록 남조선주둔 미군에 명령하고 최신예《F—22》전투기들을 일본 오끼나와에 전진배치하였다. 미제는 앞으로 조선서해해상에서 남조선괴뢰호전세력과 련합대잠수함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핵항공모함, 《이지스》구축함, 핵잠수함 등 방대한 무력이 참가하게 된다고 한다. 《천안》호사건을 기화로 벌리는 미제의 반공화국대결소동은 극도에 이르고있으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전쟁문어구로 육박하고있다.

세계는 폭발전야의 조선반도정세를 깊은 우려와 위구심을 가지고 예리하게 지켜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적들의 《무모한 〈대응〉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다.》라는 우리의 강경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보복》에는 보다 강도높은 보복으로, 《응징》에는 우리 식의 무차별적인 징벌로 맞대응하려는 우리의 멸적의 의지와 기상을 두고 세계는 선군조선이 또다시 초강경대응의 포성을 울리고있다고 평하고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횡포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세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불굴의 정신력을 폭발시켜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전의 승전고를 힘있게 울리고있는것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정일**동지를 위대한 령도자로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여난 지략과 령군술을 지니고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반공화국사기극인 《천안》호사건은 조선반도에서 정치군사적대결을 극한점으로 몰아가 기어이 제2조선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는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의식과 침략야망을 그대로 보여준다.

조미사이의 대결력사는 반세기를 훨씬 넘고있다. 이 나날에 우리의 앞길에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군사적도발책동으로 하여 엄혹한 시련이 한두번만 가로놓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인민은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드놀지 않는 혁명적신념과 의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변만화하는 령활무쌍한 지략으로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무서운 철추를 내리시는 탁월한 선군령장을 모심으로써 련전련승하였다.

조미대결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인 동시에 담력과 배짱의 대결이다. 령장의 담력과 배짱은 적과의 대결에서 승리의 담보이다. 제아무리 지략이 있다고 해도 담력이 없고 배짱이 없으면 적과의 대결에서 좌절과 실패를 면치 못한다. 하기에 예로부터 명장이 되려면 무술을 익히기 전에 배짱부터 키우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오만무도한 미국과 직접 맞서싸우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담대한 배짱과 강의한 의지가 없으면 미제와의 대결전에서 승리를 기대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지녀본적 없는 필승의 지략과 함께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제국주의강적을 쥐락펴락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를 지켜주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이전 쏘련국방성 제1부상 겸 와르샤와조약합동군 총사령관이였던 윅또르 꿀리꼬브는 자기가 집필한 책에서 《싸운다면 싸우고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산악같은 배짱,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총대는 총대로 제압해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 이것은 오늘의 랭전에서 조선인민이 패배를 모르는 승리자로 되게 하신 **김정일**동지의 명장다운 기질이다.》라고 찬양하였다.

지난 시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있었어도 옳바른 령도자가 없어 붕괴된 이전 쏘련의 교훈을 체험한 꿀리꼬브의 이 심장의 웨침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세계는 오늘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2년전인 1968년에 미해군의 《숨은 제왕》이라고 뽐내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우리 나라 령해에 기여들어 정탐행위를 하다가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에 의해 나포되였다. 이 사건이 터지자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였다. 《푸에블로》호는 당시로서는 가장 발전된 기재와 장비를 갖춘 미제의 최신형무장간첩선이였다. 《해양연구선박》으로 가장한 이 간첩선은 태평양연안국들의 항구와 군사대상들의 실태를 탐지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의 해상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간첩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던 이 간첩선이 우리 공화국의 령해에 침입하였다가 나포되자 미제는 저들에게 있어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일이라고 비명을 지르며 불맞은 이리떼마냥 날뛰였다. 악에 받친 미제는 한차례의 현대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주변에 집결시키면서 우리 나라에 대고 《사과》하고 《푸에블로》호를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핵무기사용도 서슴지 않을것이라고 최후통첩식으로 횡포하게 위협공갈해나섰다. 실로 파렴치성과 오만성의 극치였다.

바로 이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고사령관이라는 립장에 서서 《푸에블로》호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결심해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물으심에 미국이 항복서를 내기 전에는 《푸에블로》호 선원들을 절대로 석방하지 않겠다고, 《푸에블로》호는 우리의 전리품이므로 돌려주지 않고 박물관에 전시해놓겠다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기회에 큰 나라라고 하여 작은 나라를 업수이 여기는 미국의 오만한 자세를 꺾어놓아야 한다, 조선을 아직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비극이 있다, …세상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항복서를 어떻게 받아내는가를 보게 될것이라고 자신심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사면팔방으로 달려드는 미국의 군사적위협과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으시고 초강경대응으로 우리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철통같이 지키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신념, 드센 배짱과 담력은 우리 인민에게 견인불발의 의지와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었다. 그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대로 초강경대응으로 적들을 위압하였다. 마침내 미국은 우리 인민앞에 흰기를 들고 사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당시 《푸에블로》호사건을 둘러싼 첨예한 조미대결에 대하여 외국의 한 출판물은 이렇게 평했다.

《〈푸에블로〉호사건에서는 도대체 누가 사죄했고 누가 승리하였는가. 굴복한것은 미국이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장군의 조선은 미국과의 군사대결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력사적인 승리를 거둔것이다. 까리브해위기는 미국뿐아니라 전세계에서 기록영화로 거듭 방영되고있지만 이 〈푸에블로〉호사건을 둘러싼 조미군사대결과 미국의 굴복은 그이상의 력사적의미가 있는 사건이다.》

오늘도 대동강기슭에 조미군사적대결전에서의 우리의 전리품으로 결박되여있는 《푸에블로》호는 선군조선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족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필승의 기상과 담대한 배짱을 보여주는 력사적증거물로 되고있다.

조미대결에서 미국은 언제나 수치스러운 패자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력사에 기록되여있는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을 놓고보아도 미국의 도발로 벌어진 첨예한 조미군사적대결전들은 매번 미국의 굴복, 사죄와 우리의 승리로 결속되였다. 오죽했으면 미군부의 고위인물까지도 《북조선은 전갈과도 같다. 잘못 밟으면 전갈은 독침을 쏜다.》라고 비명을 질렀겠는가.

세계는 지금도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왔던 1990년대를 잊지 않고있다.

랭전종식후 더욱더 기고만장해진 미제는 그 무슨 《핵문제》를 들고나와 우리 공화국을 고립질식시키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허물기 위한 책동을 발악적으로 벌리였다. 1993년에 벌어진 미국주도하의 국제적인 반공화국《핵의혹》소동,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특별사찰》강요, 대규모핵전쟁연습인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강행, 핵공격수단들과 침략무력의 조선반도투입… 이 모든것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어째보려는 미제의 계획적이고 날강도적인 반공화국도발, 전쟁책동이였다. 이 준엄한 시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배심든든히 조미핵대결전을 련전련승에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자주성과 나라의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자기의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평화를 구걸하지 않을것이며 원쑤들은 우리 공화국의 한치의 땅, 한포기의 풀도 함부로 건드릴수 없다는 폭탄선언으로 우리 인민에게는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적들에게는 된매를 안기시였다. 한편 《핵문제》를 가지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위협과 압박의 도수를 높이는 미국의 무분별한 책동에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시였다. 1993년 3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가 선포되고 이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우리 나라가 탈퇴한다는 공화국정부성명이 발표되였다. 미국은 우리의 초강경대응에 굴복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핵몽둥이를 내리우고 조미회담마당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고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까지 받아낸것은 조미대결력사에서 우리가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승리였고 력사적사변이였다. 이를 두고 세상사람들은 《지구를 깨는것과 같은 사변》, 《강대국의 뺨을 후려갈긴 강타》라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미대결전은 오늘도 계속되고있다. 미국은 말로는 《변화》와 《화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전쟁방지》를 표방하고있지만 실지로는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여 전조선을 틀어쥐고 반동적인 대아시아전략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야망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있다. 미제는 조선반도《유사시》를 가상한 북침전쟁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놓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 발광하고있다. 그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공공연히 떠벌인것도 불과 얼마전의 일이다. 이번 《천안》호사건날조극도 조선반도정세를 초긴장상태에 몰아넣고 그것을 구실로 새로운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술책이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 백두의 담력과 기상을 지니고 선군의 위력으로 미국의 대조선압박공세를 제압해나가고있다. 적들이 칼을 빼들면 장검을 내대고 적들이 총을 내대면 대포로 맞서는것이 우리의 혁명적인 대응방식이며 기질이다.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만대적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는 드센 배짱과 담력, 뛰여난 지략을 천품으로 지니신 탁월한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있고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천만군민의 정신력과 일심단결의 힘을 가지고있는 우리를 당할자는 이 세상에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여 선군조선은 조미대결에서 백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여갈것이다.

본사기자 전영희

호금도주석 서부대개발전략을 철저히 실시할데 대해 강조

중국의 호금도주석이 5일과 6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소집한 서부대개발사업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서부대개발전략을 철저히 실시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서부대개발전략을 철저히 실시하는것은 초보적으로 부유한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목표를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당과 전국이 서부대개발전략을 철저히 실시하는것이 가지는 중요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서부대개발을 힘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나서는 총적목표는 서부지역의 종합적경제력을 한단계 올려세우고 기초시설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며 현대적인 산업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는것이라고 그는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전체 인민이 단결할것을 호소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5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적들의 제재책동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이 단결을 강화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미국과 서방이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저지시키기 위한 제재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지만 그것은 나라의 발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란인민의 앞길에는 밝은 미래가 놓여있다고 하면서 그는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세계적발전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제재책동 반대

인디아외무비서가 최근 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면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집요한 제재책동을 단호히 반대하는 자기 나라의 립장을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새로운 대이란 제재조치를 치외법권적인것으로 락인하였다.

이란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제재는 인디아의 에네르기안전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그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발전도상나라들사이의 협조

케니아와 브라질이 6일 두 나라사이의 경제협조에 관한 3건의 협정과 2건의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같은 날 뻬루와 빠라과이는 무역, 보건분야와 마약반대투쟁에서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여러건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보다 앞서 3일 아이띠와 꾸바는 보건, 교육, 농업, 건설 등 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본사기자

이스라엘의 그릇된 결정을 단죄

팔레스티나민족당국 수석협상자 사에브 에레카트가 2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의 그릇된 결정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4명의 이슬람교항쟁운동 고위성원들을 동부꾸드스에서 추방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그것은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들을 파괴하는것으로 된다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그 결정을 당장 철회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아프가니스탄항쟁세력 나토군을 련속 공격

아프가니스탄항쟁세력의 폭탄공격으로 5일 이 나라의 남부와 서부, 동부지역에서 6명의 나토군병사가 황천객이 되였다 한다.

본사기자

단평 응당한 지탄

얼마전 아메리카의 한 반포경단체가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 생물다양성조약 체약국회의에 참가하지 말것을 세계비정부조직들에 호소하였다. 요컨대 일본이 이러한 국제회의를 진행할 장소가 못된다는것이다. 이번 국제회의참가를 보이코트할것을 호소하고있는 한 영국인은 일본 《도꾜신붕》과의 회견에서 《고래와 곱등어잡이를 계속하는 일본은 바다의 생물다양성을 론하는데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일본을 질책하였다.

일본은 1990년대에도 마치 지구온난화방지에 《큰 관심》이나 있는듯이 교또시에서 그와 관련한 국제회의를 개최한적이 있다. 그러나 그후 일본의 행동은 어떠하였는가. 앞에서는 여론을 기만하고 뒤에서는 온실가스를 계속 대량방출하는 등 량면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 하여 만사람의 눈총을 받고 불명예스럽게도 《화석상》까지 수여받았다.

일본이 이번 국제회의를 개최하려는 리면에도 그 무슨 《관심》의 외피를 쓰고 리기적야욕밑에 국제적으로 금지되여있는 고래잡이를 기를 쓰고 계속하는 저들의 행위에 대한 세계의 비난을 유야무야하려는 간특한 속심이 깔려있다. 이것을 국제사회가 모를리 없다.

일본에 대한 국제적지탄은 지극히 응당한것이다. 일본은 세계민심을 똑바로 보고 이중적태도를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고래사냥군》이라는 오명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더 큰 모두매를 맞게 될것이다.

신경섭

॥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

에짚트에서

에짚트정부가 흡연금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올해 5월 이 나라 국회는 수입담배에 한하여 100% 관세를 부과할데 대한 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주민들속에서 흡연금지와 관련한 여러가지 선전사업을 벌리도록 하고있다.

에짚트보건성이 밝힌데 의하면 이 나라에서는 흡연으로 해마다 3만 7 000여명의 사망자가 나고있다 한다.

가나에서

가나정부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오수정화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따라 도시들에 오수정화시설들이 건설되여 환경오염과 질병의 원인으로 되고있는 오수를 위생학적요구에 맞게 처리하게 된다. 정화된 오수는 농업과 생물연료생산 등 분야에 리용되게 된다.

앙골라에서

앙골라정부가 올해 나라의 경제장성률을 10%로 끌어올릴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있다.

정부의 하부구조개건계획에 따라 지금 나라에서 도로와 다리, 철도역, 항구, 비행장, 전력공급망, 학교, 병원들에 대한 개건공사가 추진되고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조성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고있다.

본사기자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편승한 일본당국의 죄행 폭로

일본당국이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적극 편승한 또 하나의 죄행자료가 최근에 폭로되였다.

7일 일본 NHK방송은 《일미안전보장조약》개정과 오끼나와반환에 관한 당국의 외교문서를 공개하여 일본정부가 오끼나와반환전인 1960년대부터 오끼나와 등의 주일미군기지를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억제수단으로 규정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하였다.

문서에는 《문제는 전적으로 조선반도에 있다. 조선반도사태에 즉시 대응할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되여있다 한다.

이러한 사실은 오래전부터 주일미군기지를 조선침략전쟁의 전초기지로 삼아온 일본과 미국의 범죄행적을 여지없이 발가놓고있다.

본사기자

미국에서 반이스라엘시위

최근 끼르기즈스딴사태

소요가 계속되고있는 끼르기즈스딴정세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4월 7일에 일어난 반정부시위자들의 대중적항거가 그 발단이였다. 이날 수도 비슈께크에서는 대통령 바끼예브의 로선과 정책을 반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대규모시위투쟁에 나섰다. 그들은 물밀듯이 국회청사에 돌입하는 한편 국가TV방송회사를 장악하였다. 반정부시위는 수도는 물론 까라꿀, 나린, 딸라스 등 여러 주들에서도 일어났다. 경찰들과 시위군중간의 치렬한 충돌이 일어나 수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끼르기즈스딴에는 야당지도자 오뚠바예바를 《인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수반대리로 한 림시정부가 수립되였다. 이로써 바끼예브정권은 막을 내렸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림시정부의 발족으로 끝나지 않고있는데 있다. 현재까지 끼르기즈스딴에서는 림시정부지지자들과 이전 대통령지지자들사이의 류혈적인 충돌이 계속되고있다. 특히 이 나라의 남부지역에서는 소요가 끊기지 않고있다. 그것은 민족간 폭력사태로 번져가고있다.

끼르기즈스딴의 주민구성을 볼 때 끼르기즈계인들이 압도적다수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남부지역에서는 우즈베크계주민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이루고있다. 이로 하여 지난 시기 남부지역에서는 끼르기즈계주민과 우즈베크계주민들사이의 충돌이 자주 일어났었다.

1990년에는 오슈에서 있은 량측간의 폭력사태로 230명의 사망자와 4 000여명의 부상자가 나는 참사가 빚어졌었다. 그런데 축출된 이전 대통령 바끼예브의 강력한 지지기반이기도 한 남부지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족간 충돌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고있다. 얼마전 오슈에서 일어난 끼르기즈계와 우즈베크계청년들사이의 충돌은 남부의 여러 도시들에 파급되여 사흘동안에 100명이 훨씬 넘는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도시의 곳곳에 부상자들이 차넘치고 폭력사태를 피해 정든 집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수가 2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현재 남부지역에서의 민족간 충돌사태는 점차 완화되고있으나 정세는 의연히 복잡하다고 한다. 이런 속에서 최근 오뚠바예바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끼르기즈스딴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많은 나라들이 끼르기즈스딴의 분쟁측들이 의견상이들을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유엔은 끼르기즈스딴에 기금지원을 발표하였다.

주목되는것은 중앙아시아의 내륙국가인 끼르기즈스딴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에 대국들이 남다른 관심을 표시하고있는 점이다. 중국, 로씨야,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끼르기즈스딴에 원조제공을 표명해나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끼르기즈스딴의 전략적중요성과 관련된다. 지금 끼르기즈스딴의 수도부근에는 로씨야와 미국의 군사기지가 있다.

미국은 《9.11사건》이후 끼르기즈스딴의 수도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마나스국제비행장을 미공군기지로 임대받았다. 지금까지 미국은 《반테로전》의 주요무대인 아프가니스탄에서 벌린 군사작전들에 대한 지원을 마나스미공군기지를 통하여 진행하여왔다. 미군과 다른 나토성원국들의 군인 1 000여명이 주둔해있는 이 기지를 통하여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보장을 위해 매달 평균 1만 5 000명의 인원과 500t의 화물이 이동하고있다.

미국은 마나스미공군기지를 아프가니스탄뿐아니라 중앙아시아지역을 틀어쥐고 로씨야를 압박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거점으로 간주하고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미국은 이전 쏘련의 가맹공화국들을 주되는 대상으로 하여 《장미혁명》, 《츄립혁명》등 형형색색의 《색갈혁명》을 조작하였다. 그 목적은 《색갈혁명》의 방법으로 이 나라들을 안으로부터 녹여내여 친미정권을 조작함으로써 로씨야에 대한 포위환을 바싹 좁히고 이 지역에서 저들의 지배권을 손쉽게 확장하려는데 있었다. 이번에 붕괴된 바끼예브정권도 2005년 미국의 조종하에 일어난 《색갈혁명》의 산물이였다. 지난해 기한이 만료된 마나스미공군기지의 폐쇄조치를 놓고 미국은 끼르기즈스딴을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공작을 벌리였다.

그런가 하면 2003년 10월 끼르기즈스딴의 수도에서 동쪽으로 30㎞ 떨어진 깐뜨시에 로씨야의 군사기지가 설치되였다. 이것은 끼르기즈스딴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정치군사적개입에 불안을 느낀 로씨야의 대응조치였다. 결국 끼르기즈스딴은 두 나라의 군사기지가 공존해있는 나라로 되고있다.

끼르기즈스딴사태가 국제사회에 주는 교훈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민주주의보장》의 미명하에 일으키고있는 《색갈혁명》이 가져다주는것은 정치적대립과 모순, 혼란과 무질서뿐이라는것이다.

안국철

미국법정의 《판결》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최근 미련방최고재판소가 피이한 《중대판결》을 내렸다. 그 내용인즉 개인의 총기소유가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리》라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 일대 론난이 일고있다. 그도그럴것이 미국에서 개인의 총기소유권리는 지지파와 반대파사이의 치렬한 론쟁거리로 되여온 민감한 문제이다.

총기소유를 주장하는 파는 그것이 공민의 《법적권리》라고 떠들어대고있다. 미국에서 1791년에 채택된 헌법 제2조 수정안에는 국민들이 무기를 소유하며 그 권리를 침범할수 없다고 명기되여있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에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무기를 구할수 있다. 심지어 10살 되나마나한 어린이도 무기를 살수 있다. 미국에서 개인이나 가정들에서 보유하고있는 총기는 인구 1인당 1정에 달한다고 한다.

한편 반대파는 살인사건이 줄어들지 않는 주되는 요인의 하나가 바로 총기소유에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사실이 그렇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처럼 되여버린 총기류에 의한 각종 범행은 미국에 총기류범죄왕국의 불명예스러운 별칭을 달아주었다. 말세기적인 《총기문화》가 범람하는 미국에서는 2초에 한건씩 총기류에 의한 살인범죄가 감행되고있다. 식당과 지하철도역, 거리와 살림집, 교회당 어느 곳에서나 총을 가지고 서로 죽일내기를 하는 피비린 살륙전이 수시로 벌어지고있다. 지어 신성한 교정까지도 총기범죄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총기류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자를 기록하는 《사망시계》가 주야 만가동하는 피이한 일이 펼쳐지고있겠는가.

때문에 미국에서는 총기류사용금지활동이 벌어지고있다. 총기류에 의한 폭력행위에 항의하여 2000년 5월에 일어난 100만명 어머니시위행진은 썩어빠진 《총기문화》가 산생시킨 사회의 폐단을 반대하는 민심의 반영이였다. 날이 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총기류에 대한 관리사업을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이번에 미련방최고재판소가 개인의 총기소유를 국민의 《기본권리》로 선포함으로써 그에 대해 누구도 어쩌지 못하게 만들어놓았다. 미련방최고재판소는 련방정부뿐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정부도 개인의 총기소유권리를 침해할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언제인가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총은 미국문화의 핵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이것은 그대로 총기류가 사람들의 생활의 한부분으로 되고있으며 《폭력문화》의 핵을 이루는 비인간적이고 퇴폐적인 미국식 사회적풍조에 대한 개탄이다. 미련방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폭력문화》, 《총기문화》가 만연되는 총기류범죄왕국의 진상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주고있다.

개인의 총기소유권리를 법적으로 허용한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에 콜럼비아특별구의 권총소유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한바 있다. 이 재판소가 이번에 또다시 총기소유권리에 관한 《판결》을 내린것은 이전의 《판결》이 콜럼비아특별구와 련방정부건물안에서만 적용되였기때문이라고 한다. 실지로 현재 시카고시당국을 비롯한 여러 지방정부들에서는 이런저런 형식의 범위안에서 총기소유를 제한하고있다. 이번 《판결》은 미국내의 이러한 불일치를 없애고 모든 지방들에서 개인의 총기소유권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전국적범위에서 개인의 총기소유를 법제화한 이번 《판결》이 총기범죄성행을 더욱 키질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은 불보듯 뻔하다.

미련방최고재판소의 《판결》은 미국의 무기제조업체들에 합법적인 리윤추구의 넓은 길을 열어준것으로 된다. 이것은 미국의 무기제조업체들과 권력기관사이의 밀접한 유착관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에서 총기류장사를 통해 거액의 리윤을 보고있는 무기제조업체들은 불룩한 돈주머니를 흔들며 대통령선거까지 좌지우지하고있다. 때문에 미국의 집권층은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바쁘게 저들에게 정치자금을 대주고있는 무기제조업체들의 대대적인 무기판매를 공공연히 비호두둔해나서고있다.

2004년에 미국회가 무기판매업체들의 리익을 대변하여 《화력무기보유금지법》을 무효화시킨것은 그 단적실례이다. 미국의 무기제조업체들은 국회가 자기들의 리익에 저촉되는 어떠한 법도 승인하지 못하게 하고있다. 미련방최고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각지에 지부를 두고있는 미국총기협회 등이 미국력사상 《위대한 순간이였다.》고 환성을 올리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황금은 쇠불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이 있다. 미련방최고재판소가 무기제조업체들의 리익보장을 위해 민심을 거역하며 단행한 총기소유의 합법화조치가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총기류범죄의 희생물로, 정신육체적불구자로 만들겠는가 하는것은 시간이 증명해줄것이다.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에 의해 말세기적인 《폭력문화》, 《총기문화》성행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는 총기류범죄왕국인 미국의 파멸은 불가피하다.

본사기자 배금희

ㄱ-011233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집위원회